제 194호
2023-14호
(2023.11.30.)

KLSI
ISSUE PAPER

www.klsi.org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3.8)결과-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목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407 (백련빌딩) 701호
전화 02)393-1459
팩스 02)393-4449
www.facebook.com/klsi.org/

<요 약>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3년 8월)를 분석한 결과 발견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는 2022년 8월 2,172만 명에서 2023년 8월 2,195만 명으로 23만 명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900만 명(41.4%)에서 906만 명(41.3%)으로 6만 명(−0.1%p) 증가했다. 기간제는 469만 명(21.6%)에서 481만 명(21.9%)으로 12만 명(0.3%p) 증가했고, 시간제는 369만 명(17.0%)에서 387만 명(17.6%)으로 19만 명(0.6%p) 증가했다.

둘째,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가 축소되고 있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은 시간당 임금 기준 2022년 72.6%에서 2023년 73.7%로 1.1%p 상승했고, 월 임금 총액 기준으로는 65.0%에서 65.8%로 0.8%p 상승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시간당 임금 기준 65.9%에서 66.9%로 1.0%p 상승했고, 월 임금 총액 기준으로는 53.7%에서 53.9%로 0.2%p 상승했다.

셋째, 임금 불평등(상위 10%와 하위 10% 컷오프의 임금 격차, P9010)은 시간당 임금 기준 2022년 3.36배에서 2023년 3.21배로 개선됐고, 월 임금 기준으로는 5.45배에서 5.05배로 개선되었다. 저임금 계층(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은 시간당 임금 기준 15.6%에서 14.0%로 개선됐고, 월 임금 총액 기준으로는 19.4%에서 18.8%로 개선되었다.

넷째, 법정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460원(5.0%) 인상되었다. 최저임금 수혜자(비율)는 222만 명(10.2%)에서 205만 명(9.3%)으로 17만 명(0.9%p) 감소했고, 최저임금 미달자(비율)는 276만 명(12.7%)에서 301만 명(13.7%)으로 25만 명(1.0%p) 증가했다.

다섯째, 시급제 노동자 중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21년 3만 명(1.4%)에서 2022년 43만 명(17.6%), 2023년 32만 명(13.2%)으로 증가했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 2022년부터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9천 원을 시급으로 지급했기 때문이다. 시급 9천 원 받았다고 응답한 만 65세 이상 노인이 2022년 37만 명, 2023년 28만 명에 이른다.

여섯째,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개선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2022년 36.8%에서 2023년 41.8%로 증가했고, 건강보험 가입률은 49.7%에서 50.9%로, 고용보험 가입률은 51.9%에서 52.7%로 증가했다.

일곱째, 노조 조합원 수(조직률)는 2022년 269만 2천 명(12.4%)에서 2023년 268만 9천 명(12.2%)으로 3천 명(0.2%p) 감소했다. 정규직은 241만 명(18.9%)에서 243만 명(18.9%)으로 2만 명(0.0%p) 증가한 데에 비해, 비정규직은 28만 명(3.1%)에서 26만 명(2.8%)으로 2만 명(0.3%p) 감소했다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23.8)결과–

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I. 비정규직 규모

1. 전체

통계청이 2023년 8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906만 명(임금노동자의 41.3%)이고 정규직은 1,290만 명(58.7%)이다. 세부 고용형태별로는 기간제가 481만 명(21.9%)으로 가장 많고, 시간제(파트타임)도 387만 명(17.6%)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직의 92.5%(906만 명 가운데 838만 명)가 임시근로자거나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어,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특징을 보인다(<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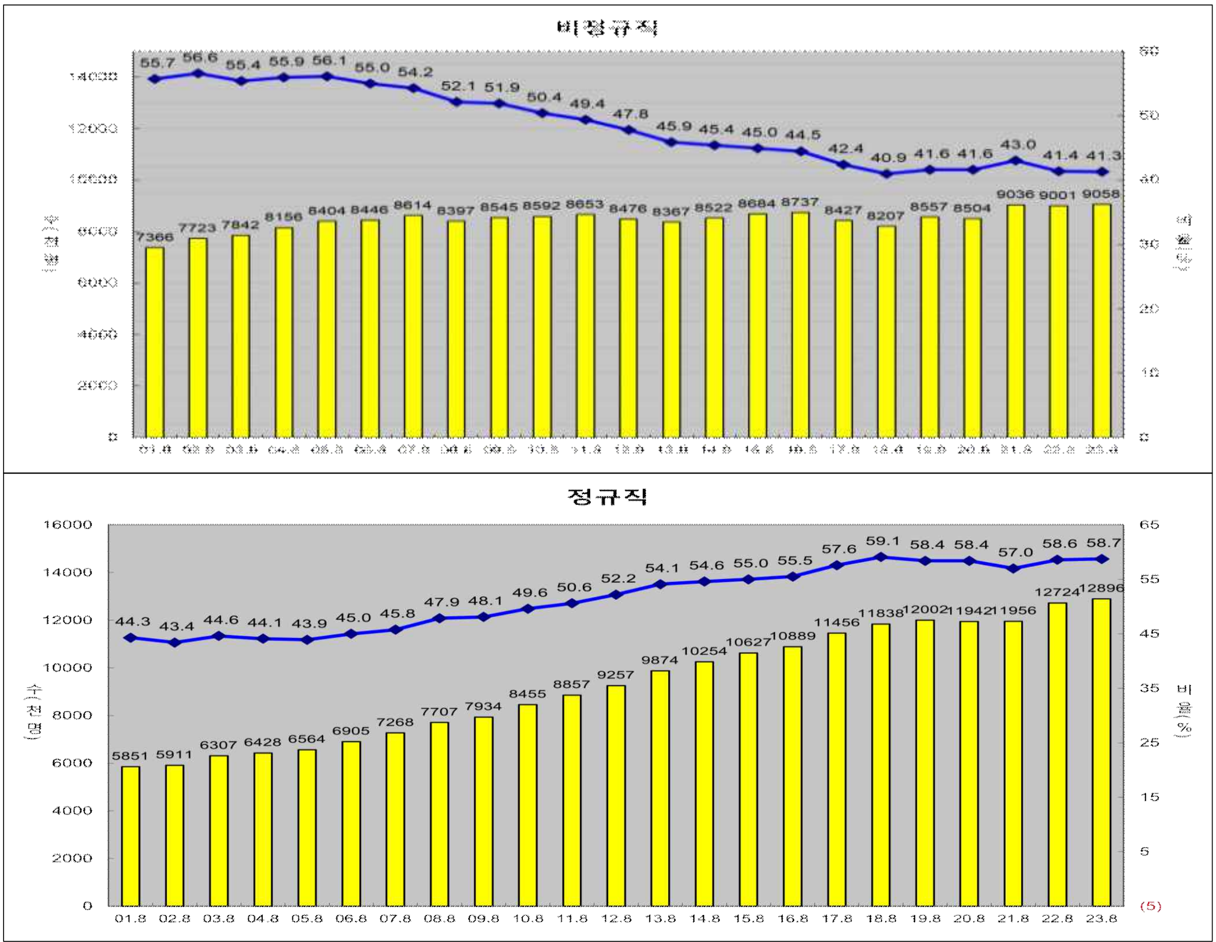
<표 1> 비정규직 규모 (2023년 8월)

		수(천 명)				비율(%)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임금노동자(1)		16,193	4,759	1,002	21,954	73.8	21.7	4.6	100.0
정규직(2=1−3)		12,896			12,896	58.7			58.7
비정규직 (3=①+ (……) +⑧, 중복 제외)		3,297	4,759	1,002	9,058	15.0	21.7	4.6	41.3
고용계약	임시근로	2,622	4,759	1,002	8,383	11.9	21.7	4.6	38.2
	장기임시근로 ①		2,187	800	2,987		10.0	3.6	13.6
	한시근로 ②	2,622	2,572	202	5,396	11.9	11.7	0.9	24.6
	(기간제)	2,553	2,122	134	4,809	11.6	9.7	0.6	21.9
근로시간	시간제근로③	927	2,515	431	3,873	4.2	11.5	2.0	17.6
근로제공 방식	호출근로 ④			665	665			3.0	3.0
	특수고용 ⑤	33	493	27	553	0.2	2.2	0.1	2.5
	파견용역	453	209	94	756	2.1	1.0	0.4	3.4
	(파견) ⑥	121	84	16	221	0.6	0.4	0.1	1.0
	(용역) ⑦	332	125	78	535	1.5	0.6	0.4	2.4
	가내근로 ⑧	26	33	13	72	0.1	0.2	0.1	0.3

비정규직은 2001년(737만 명)부터 2007년(861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8년(840만 명)부터 2016년(874만 명)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조금씩 증가했다. 2017년(843만 명)에는 31만 명, 2018년(821만 명)에는 22만 명 감소했지만, 2019년(856만 명)에는 35만 명, 2021년(904만 명)에는 54만 명 증가했다. 코로나 위기가 지나간 2022년(900만 명)과 2023년(906만 명)에는 2021년 수준을 유지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54.2%)부터 2018년(40.9%) 사이 계속 감소했고, 2019년 이후 41.3~43.0%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정규직은 2001년(585만 명)부터 2019년(1,200만 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1,194만 명)과 2021년(1,196만 명)에는 2019년 수준을 유지했다. 코로나 위기가 지나간 2022년(1,272만 명)에는 76만 명 증가했고, 2023년(1,290만 명)에는 17만 명 증가했다. 정규직 비율은 2001년(44.3%)부터 2005년(43.9%)까지 44% 안팎을 유지하다가 2006년(45.0%)부터 2018년(59.1%) 사이 꾸준히 증가했고, 2019년 이후에는 57.0~58.7%에서 오르내리고 있다([그림 1]과 <표 2> 참조).

[그림 1] 비정규직과 정규직 규모 추이



<표 2>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수(천 명)					비율(%)				
	19년 8월	20년 8월	21년 8월	22년 8월	23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21년 8월	22년 8월	23년 8월
임금노동자	20,559	20,446	20,992	21,725	21,954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12,002	11,942	11,956	12,724	12,896	58.4	58.4	57.0	58.6	58.7
비정규직	8,557	8,504	9,036	9,001	9,058	41.6	41.6	43.0	41.4	41.3
임시근로	8,072	8,023	8,518	8,441	8,383	39.3	39.2	40.6	38.9	38.2
장기임시근로	3,645	3,386	3,364	3,147	2,987	17.7	16.6	16.0	14.5	13.6
한시근로	4,427	4,637	5,154	5,293	5,396	21.5	22.7	24.6	24.4	24.6
(기간제)	3,799	3,933	4,537	4,690	4,809	18.5	19.2	21.6	21.6	21.9
시간제근로	3,156	3,252	3,512	3,687	3,873	15.4	15.9	16.7	17.0	17.6
호출근로	748	896	954	814	665	3.6	4.4	4.5	3.7	3.0
특수고용	529	498	560	561	553	2.6	2.4	2.7	2.6	2.5
파견용역	797	716	795	755	756	3.9	3.5	3.8	3.5	3.4
(파견)	181	164	211	189	221	0.9	0.8	1.0	0.9	1.0
(용역)	616	552	584	567	535	3.0	2.7	2.8	2.6	2.4
가내근로	46	49	79	94	72	0.2	0.2	0.4	0.4	0.3

[참고] 비정규직 추계 방식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를 분석한 이 글에서 비정규직 규모는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중복 제외)'로 계산했고, 정규직 규모는 '임금노동자 − 비정규직'으로 계산했다(<표 1> 참조).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기임시근로: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자 − 한시근로

☞ 이 글에서 장기임시근로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장기간 임시직으로 사용하는 장기임시근로자(permanent temporary worker, long-term temps, permatemps) 이외에, 업체 비소속 자유노동자(casual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② 한시근로: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자(문항 22번 응답 1) +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문항 22번 응답 2 & 문항 63번 응답 2)

③ 시간제근로: 문항 64번 응답 2

④ 호출근로: 문항 62번 응답 1

⑤ 특수고용: 문항 67번 응답 1

⑥ 파견근로: 문항 65번 응답 2

⑦ 용역근로: 문항 65번 응답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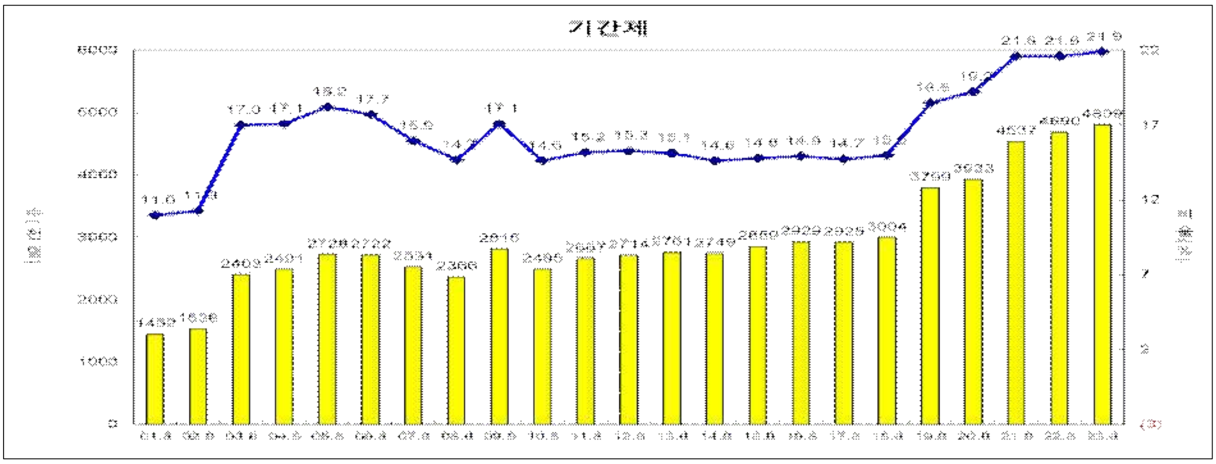
☞ 설문조사에서 임금을 파견업체에서 받았다고 응답하면 파견근로, 용역업체에서 받았다고 응답하면 용역근로로 분류될 뿐,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구분해야 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합친 '파견용역근로' 분석 결과도 함께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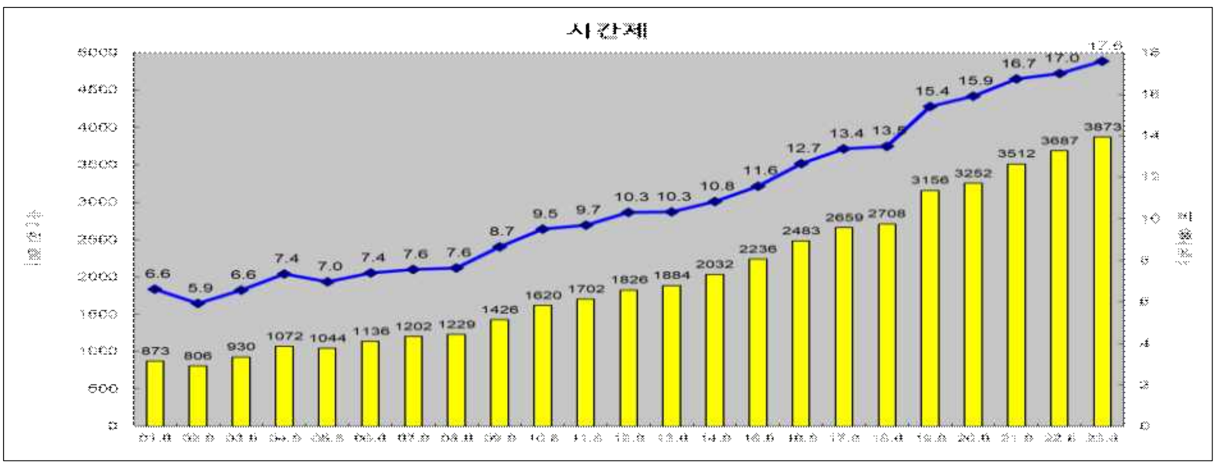
⑧ 가내근로: 문항 68번 응답 1

2. 세부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는 2005년 273만 명(18.2%)을 정점으로 기간제보호법 제정에 힘입어 2008년 237만 명(14.7%)으로 감소했다. 2009년에 282만 명(17.1%)으로 늘어난 것은 희망근로 사업 때문이며, 2010년 250만 명(14.6%)부터 2018년 300만 명(15.0%) 사이는 14~15%대를 유지했다. 2019년에 380만 명(18.5%)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설문 문항이 바뀌면서 그동안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가 추가로 포착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고, 2021년에 454만 명(21.6%)으로 다시 증가한 것은 코로나 위기로 증대된 불확실성을 기업이 기간제 사용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다. 2022년에는 469만 명(21.6%), 2023년에는 481만 명(21.9%)으로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시간제 근로는 2002년 81만 명(5.9%)에서 2023년 387만 명(17.6%)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 2]와 <표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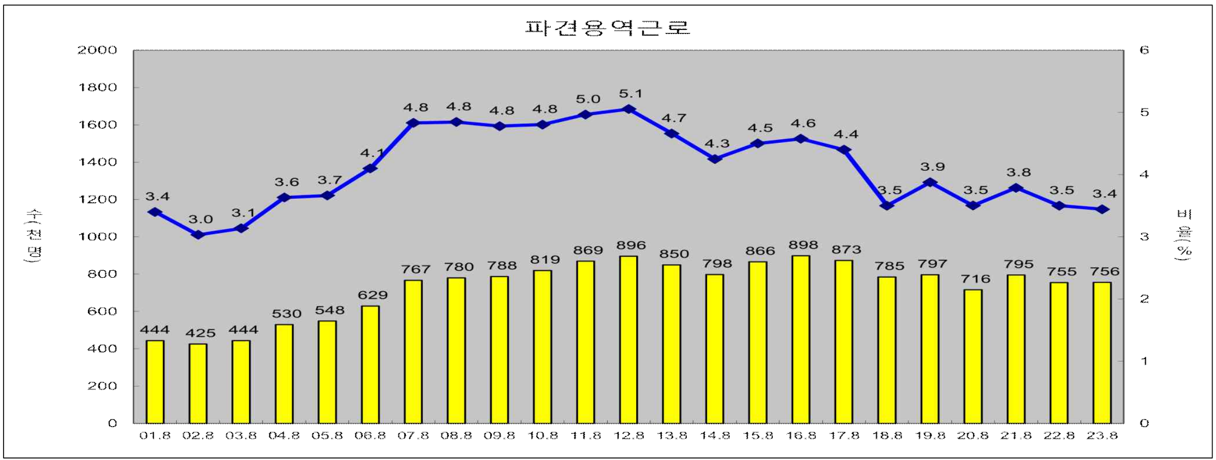
[그림 2]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 추이





파견근로와 용역근로를 합친 파견용역근로는, 2002년 43만 명(3.0%)에서 2007년 77만 명(4.8%)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07~2012년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2년 90만 명(5.1%)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최근에는 2016년 90만 명(4.6%)에서 2018년 79만 명(3.5%)으로 감소했고, 2019년 이후는 72~80만 명(3.4~3.9%)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그림 3]과 <표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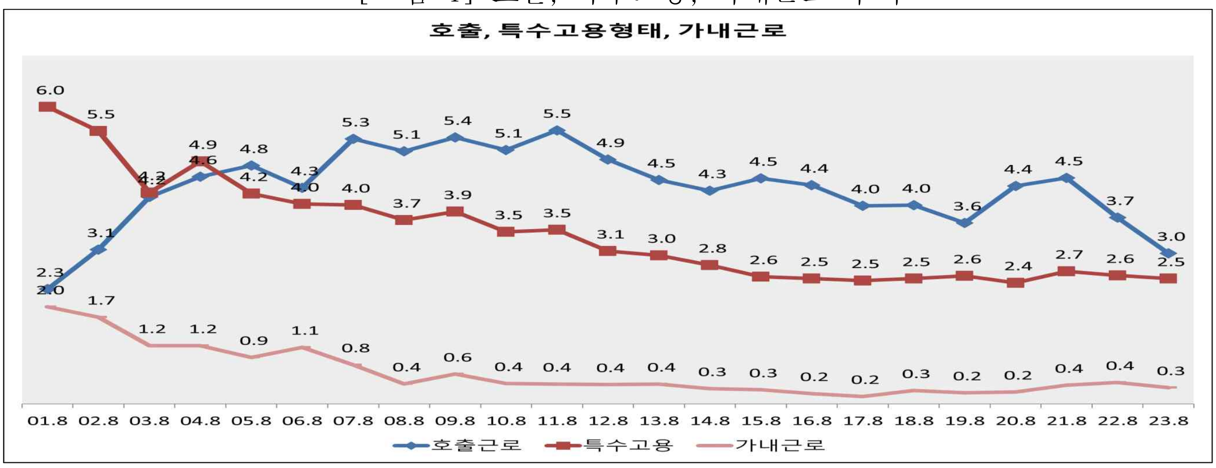
[그림 3] 파견용역근로



호출근로는 2011년 96만 명(5.5%)을 정점으로 2019년 75만 명(3.6%)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 국면에는 2020년 90만 명(4.4%), 2021년 95만 명(4.5%)으로 증가했고, 2022년 81만 명(3.7%), 2023년 67만 명(3.0%)으로 다시 감소하고 있다.

특수고용은 2001년 79만 명(6.0%)에서 2020년 50만 명(2.4%)으로 감소했다가, 2021~2023년에는 55~56만 명(2.5~2.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수고용이 예상과 달리 크게 적은 이유는, 상당수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기 때문이다. 가내근로도 같은 시기 26만 명(2.0%)에서 5만 명(0.2%)으로 감소했다가, 2021~22년 8~9만 명(0.4%)으로 증가했고, 2023년에 다시 7만 명(0.3%)으로 감소했다([그림 4]와 <표 2> 참조).

[그림 4] 호출, 특수고용, 가내근로 추이



3. 남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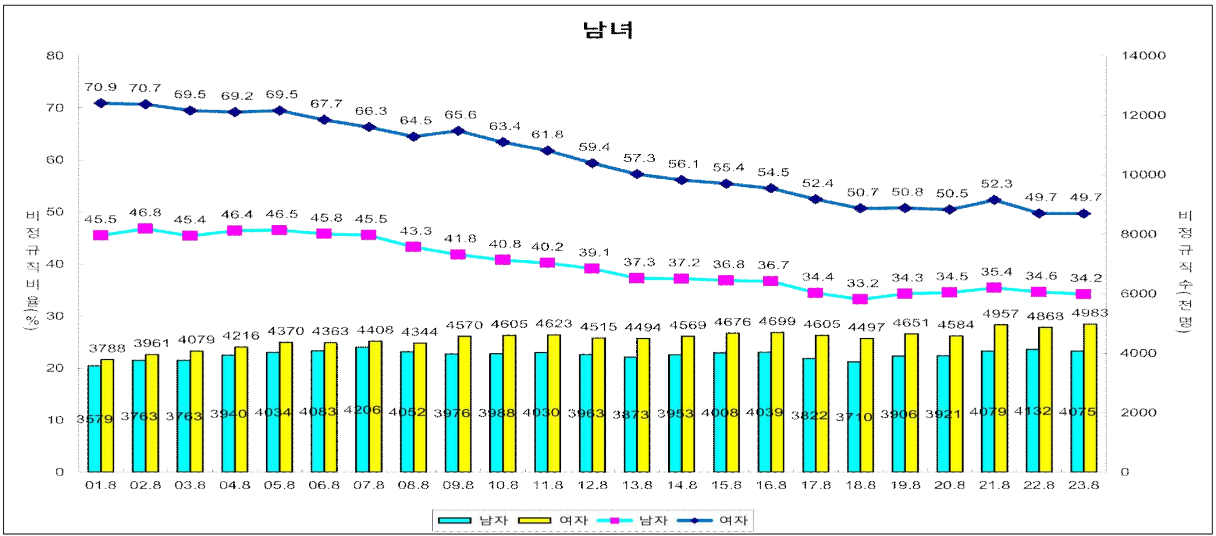
남자는 정규직이 785만 명(65.8%), 비정규직이 408만 명(34.2%)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504만 명(50.3%), 비정규직이 498만 명(49.7%)으로 엇비슷하다. 남성 비정규직보다 여성 비정규직이 91만 명 많다.

여자는 비정규직 비율이 2001년(70.9%)부터 2022~23년(49.7%)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남자는 2005년(46.5%)을 정점으로 2018년(33.2%)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9~23년에는 34.2~35.4%에서 오르내리고 있다(<표 3>과 [그림 5] 참조).

<표 3>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2023년 8월)

		수(천 명)		비중(%)		분포(%)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임금노동자		11,927	10,027	100.0	100.0	54.3	45.7
정규직		7,852	5,044	65.8	50.3	60.9	39.1
비정규직		4,075	4,983	34.2	49.7	45.0	55.0
고용계약	임시근로	3,859	4,524	32.4	45.1	46.0	54.0
	장기임시근로	1,431	1,555	12.0	15.5	47.9	52.1
	한시근로	2,428	2,969	20.4	29.6	45.0	55.0
	(기간제)	2,160	2,649	18.1	26.4	44.9	55.1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1,143	2,731	9.6	27.2	29.5	70.5
근로제공 방식	호출근로	507	158	4.3	1.6	76.2	23.8
	특수고용	211	343	1.8	3.4	38.1	61.9
	파견용역	413	343	3.5	3.4	54.6	45.4
	(파견)	107	114	0.9	1.1	48.4	51.6
	(용역)	306	229	2.6	2.3	57.2	42.8
	가내근로	21	51	0.2	0.5	29.2	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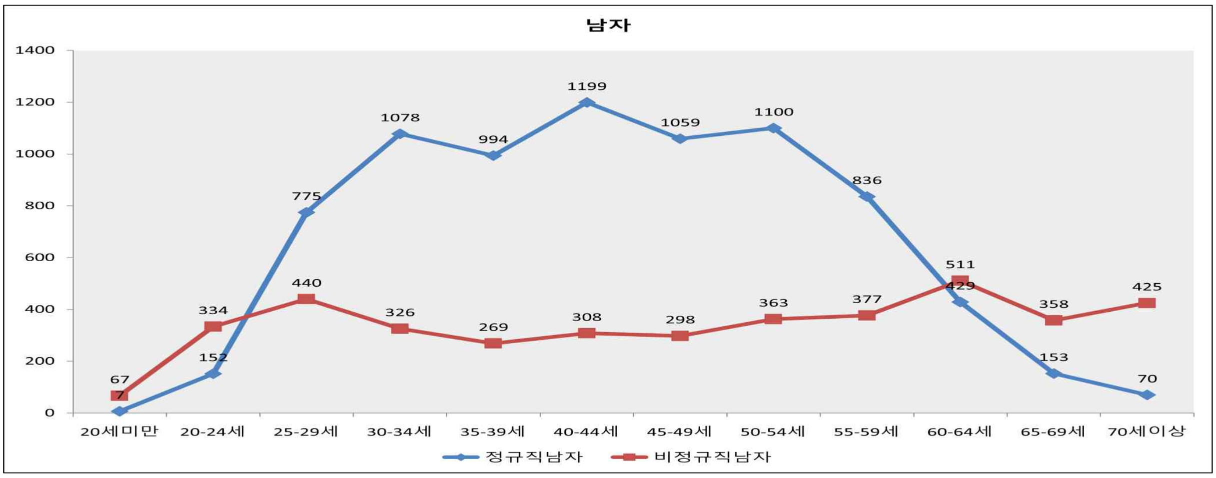
[그림 5] 남녀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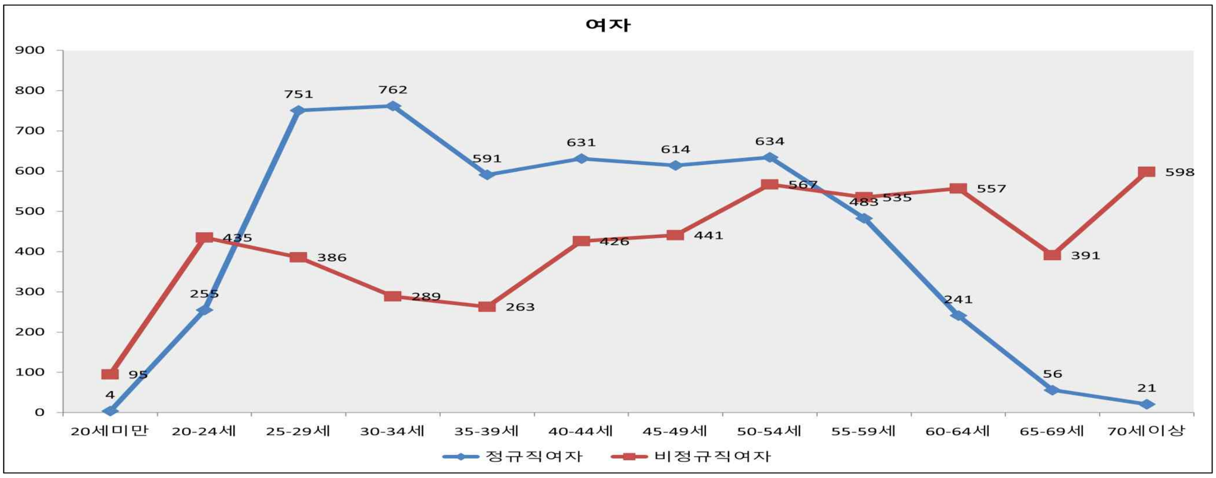


4. 연령

남자는 청년층(20대 초반 이하)과 고령층(60대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다. 여자도 청년층(20대 초반 이하)과 중고령층(50대 후반 이상)만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고, 그밖에 연령층에서는 정규직이 많다. 정규직 여자는 20대 후반(75만 명) 내지 30대 초반(76만 명)을 정점으로 30대 후반(59만 명)에 감소했다가 40대 초반부터 50대 초반까지 61~63만 명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정규직 여자는 30대 후반(26만 명)을 저점으로 늘어나 40대 초반에는 43만 명, 5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까지는 54~57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출산과 자녀 육아기를 거친 여성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려 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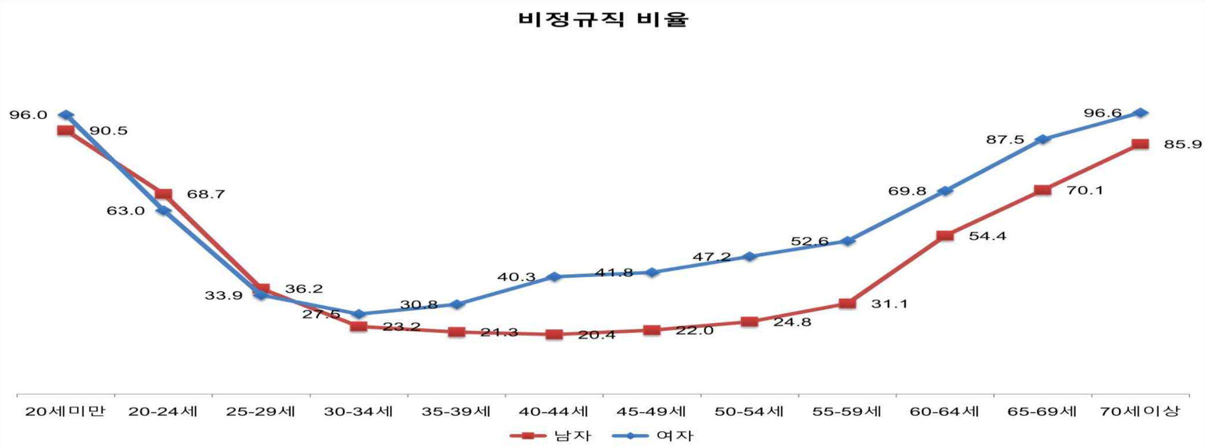
[그림 6] 남녀 고용형태별 연령계층별 분포 (2023년 8월, 단위: 천 명)





성별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는 30~40대(20~23%)를 저점으로 하는 'U자형'을 그리지만, 여자는 30대 초반(27.5%)을 저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대 이하 연령층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거나 비슷하지만, 3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그림 7] 참조).

[그림 7] 성별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비율 (2023년 8월, 단위: %)



연령계층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핵심 연령층(30~54세)은 10명 중 3명꼴로 비정규직이고, 청년층(15~29세)과 준고령자(55~64세)는 10명 중 5명꼴로 비정규직이다. 이에 비해 고령자(65세 이상)는 10명 중 8~9명꼴로 비정규직이다(<표 4> 참조).

<표 4>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규모 (2023년 8월)

	수(천 명)				비율(%)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 이상	15~29세	30~54세	55~64세	65세 이상
임금노동자	3,701	12,211	3,969	2,074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1,945	8,662	1,989	301	52.6	70.9	50.1	14.5
비정규직	1,756	3,549	1,980	1,773	47.4	29.1	49.9	85.5
임시근로	1,686	3,200	1,813	1,684	45.6	26.2	45.7	81.2
장기임시근로	638	1,210	762	377	17.2	9.9	19.2	18.2
한시근로	1,048	1,990	1,052	1,307	28.3	16.3	26.5	63.0
(기간제)	842	1,820	923	1,223	22.8	14.9	23.3	59.0
시간제근로	882	1,095	732	1,164	23.8	9.0	18.4	56.1
호출근로	48	267	231	120	1.3	2.2	5.8	5.8
특수고용	42	310	149	52	1.1	2.5	3.8	2.5
파견용역	57	247	226	225	1.5	2.0	5.7	10.8
(파견)	28	88	63	42	0.8	0.7	1.6	2.0
(용역)	29	159	163	182	0.8	1.3	4.1	8.8
가내근로	16	34	10	12	0.4	0.3	0.3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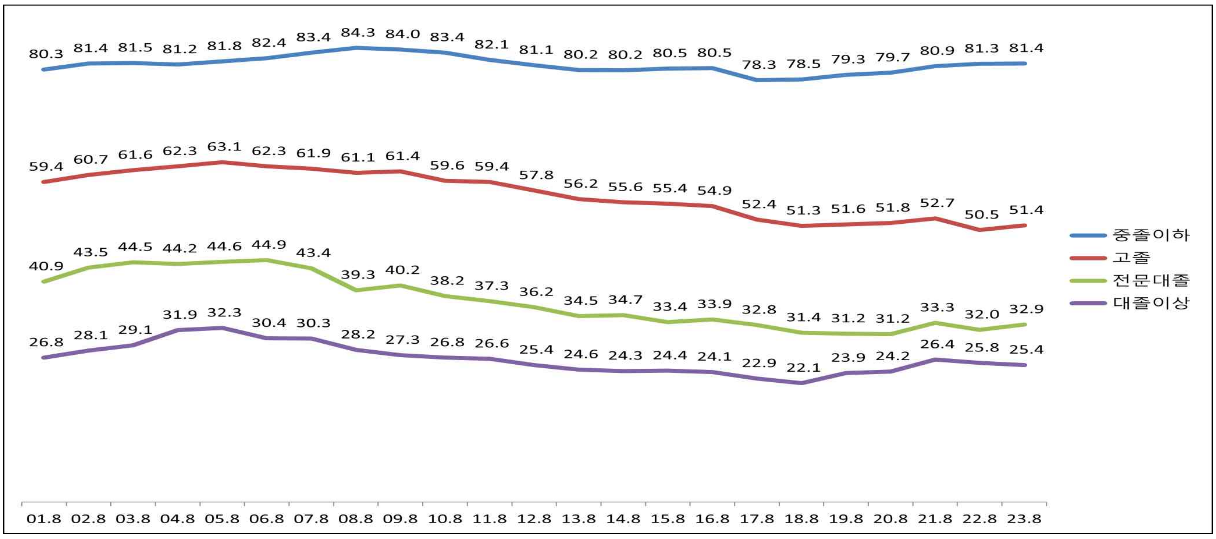
5. 학력

비정규직 906만 명 가운데 중졸 이하는 175만 명(19.3%), 고졸은 401만 명(44.3%)으로, 고졸 이하 학력이 576만 명(63.6%)을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 81.4%, 고졸 51.4%, 전문대졸 32.9%, 대졸 이상 25.4%로,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학력 간 격차가 구조화되어 있다(<표 5>와 [그림 8] 참조).

<표 5> 학력별 비정규직 규모 (2023년 8월)

	수(천 명)				비율(%)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임금노동자	2,152	7,813	3,236	8,751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400	3,800	2,170	6,525	18.6	48.6	67.1	74.6
비정규직	1,752	4,013	1,066	2,226	81.4	51.4	32.9	25.4
임시근로	1,677	3,743	962	2,001	77.9	47.9	29.7	22.9
장기임시근로	552	1,637	328	469	25.7	21.0	10.1	5.4
한시근로	1,125	2,106	634	1,533	52.3	27.0	19.6	17.5
(기간제)	1,024	1,781	579	1,425	47.6	22.8	17.9	16.3
시간제근로	1,058	1,659	336	820	49.2	21.2	10.4	9.4
호출근로	216	355	41	53	10.0	4.5	1.3	0.6
특수고용	34	272	91	156	1.6	3.5	2.8	1.8
파견용역	198	369	79	110	9.2	4.7	2.4	1.3
(파견)	45	105	27	43	2.1	1.3	0.8	0.5
(용역)	152	264	52	66	7.1	3.4	1.6	0.8
가내근로	11	24	14	23	0.5	0.3	0.4	0.3

[그림 8] 연도별 학력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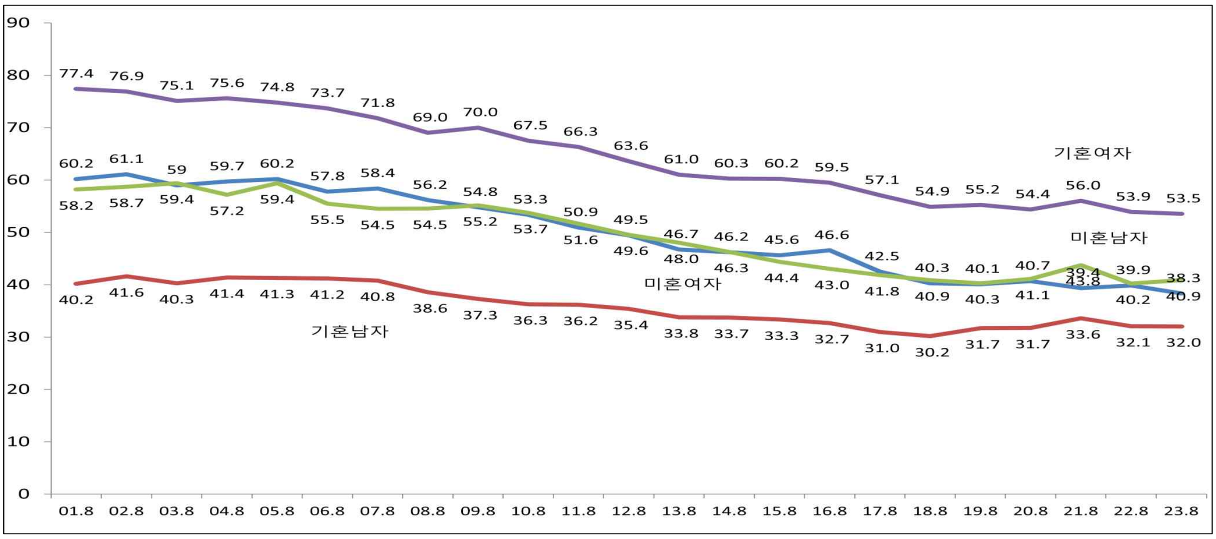
6. 성별 혼인 여부

비정규직 906만 명 가운데 기혼 여자는 374만 명(41.3%), 기혼 남자는 254만 명(28.0%)으로, 기혼자가 628만 명(69.3%)을 차지하고 있다. 성별 혼인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미혼 남자 38.3%, 기혼 남자 32.0%, 미혼 여자 40.9%, 기혼 여자 53.5%로, 미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작지만, 기혼자는 남녀 간에 차이가 크다(<표 6>과 [그림 9] 참조).

<표 6> 성별 혼인별 비정규직 규모 (2023년 8월)

	수(천 명)				비중(%)			
	미혼 남자	기혼 남자	미혼 여자	기혼 여자	미혼 남자	기혼 남자	미혼 여자	기혼 여자
임금노동자	4,018	7,910	3,043	6,983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2,478	5,375	1,799	3,244	61.7	68.0	59.1	46.5
비정규직	1,540	2,535	1,244	3,739	38.3	32.0	40.9	53.5
임시근로	1,468	2,391	1,178	3,346	36.5	30.2	38.7	47.9
장기임시근로	578	853	417	1,138	14.4	10.8	13.7	16.3
한시근로	891	1,537	761	2,208	22.2	19.4	25.0	31.6
(기간제)	751	1,409	640	2,008	18.7	17.8	21.0	28.8
시간제근로	493	649	620	2,110	12.3	8.2	20.4	30.2
호출근로	129	378	25	133	3.2	4.8	0.8	1.9
특수고용	63	148	48	294	1.6	1.9	1.6	4.2
파견용역	103	310	34	309	2.6	3.9	1.1	4.4
(파견)	39	68	18	96	1.0	0.9	0.6	1.4
(용역)	64	242	16	213	1.6	3.1	0.5	3.1
가내근로	12	9	12	39	0.3	0.1	0.4	0.6

[그림 9] 연도별 성별혼인별 비정규직 비율 추이 (단위: %)



7. 산업

비정규직 3명 중 2명(592만 명, 65.4%)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51만 명), 숙박음식점업(99만 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90만 명), 건설업(90만 명), 도소매업(82만 명), 제조업(79만 명) 등 6개 산업에 몰려 있다.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은 최대 98.5%(가구 내 고용활동 등), 최소 14.3%(광업)로 산업별 격차가 크다(<표 7> 참조).

<표 7>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 (2023년 8월)

	수(천 명)						비율(%)					
	비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	비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호출근로	특수고용	용역
농업임업어업	78	20	23	26	0	1	74.3	19.0	21.9	24.8		1.0
광업	1	1	0	0	0	0	14.3	14.3				
제조업	794	451	173	33	2	9	19.7	11.2	4.3	0.8	0.0	0.2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15	11	1	0	0	1	16.3	12.0	1.1			1.1
하수폐기물재생환경복원	34	25	5	1	0	2	25.2	18.5	3.7	0.7		1.5
건설업	896	250	158	394	5	55	52.6	14.7	9.3	23.1	0.3	3.2
금융보험업	320	83	50	0	232	0	43.4	11.2	6.8		31.4	
부동산임대업	225	142	67	1	15	24	57.4	36.2	17.1	0.3	3.8	6.1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243	169	71	1	5	6	20.8	14.5	6.1	0.1	0.4	0.5
사업시설관리지원서비스	900	568	207	68	28	571	67.8	42.8	15.6	5.1	2.1	43.0
도매소매업	823	275	417	43	89	21	38.6	12.9	19.6	2.0	4.2	1.0
운수업	301	147	67	23	57	8	33.5	16.4	7.5	2.6	6.3	0.9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209	148	51	3	6	8	21.9	15.5	5.3	0.3	0.6	0.8
숙박음식점업	993	242	624	35	1	11	69.0	16.8	43.3	2.4	0.1	0.8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234	113	112	6	27	1	67.2	32.5	32.2	1.7	7.8	0.3
협회단체수리기타개인	315	112	117	16	42	7	44.7	15.9	16.6	2.3	6.0	1.0
가구내고용활동 등	64	5	39	7	0	1	98.5	7.7	60.0	10.8		1.5
공공행정국방행정	383	363	252	0	0	0	30.1	28.5	19.8			
교육서비스업	712	475	417	1	40	5	44.9	30.0	26.3	0.1	2.5	0.3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1,514	1,206	1,021	6	6	24	53.3	42.4	35.9	0.2	0.2	0.8
국제외국기관	4	3	2	0	0	0	25.0	18.8	12.5			
전 산업	9,058	4,809	3,874	664	555	755	41.3	21.9	17.6	3.0	2.5	3.4

8. 직업

비정규직 2명 중 1명(529만 명, 58.4%)은 단순노무직(283만 명)이거나 판매서비스직(246만 명)이다. 비정규직 비율은 최대 79.0%(단순노무직)에서 최소 16.3%(관리직)로 직업별 격차가 크다(<표 8> 참조).

<표 8> 직업별 비정규직 규모 (2023년 8월)

	수(천 명)						비율(%)					
	비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	비정규직	기간제	시간제	호출근로	특수고용	파견용역
관리자	73	51	9	0	4	4	16.3	11.4	2.0		0.9	0.9
전문가	1,413	1,006	517	3	68	34	26.8	19.1	9.8	0.1	1.3	0.6
사무직	925	643	306	4	20	41	19.6	13.6	6.5	0.1	0.4	0.9
서비스직	1,569	695	963	38	39	71	63.2	28.0	38.8	1.5	1.6	2.9
판매직	892	222	418	14	310	39	59.6	14.8	27.9	0.9	20.7	2.6
농림어업숙련직	41	20	6	5	0	1	56.2	27.4	8.2	6.8		1.4
기능직	768	273	115	225	5	57	44.9	16.0	6.7	13.2	0.3	3.3
장치기계조작조립원	548	328	79	31	39	67	25.3	15.2	3.7	1.4	1.8	3.1
단순노무직	2,829	1,571	1,461	344	68	442	79.0	43.9	40.8	9.6	1.9	12.3
전 직업	9,058	4,809	3,874	664	553	756	41.3	21.9	17.6	3.0	2.5	3.4

9. 사업체 규모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낮고,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16.3%인데, 5인 미만 사업체에서 비정규직 비율은 66.8%다. 이처럼 비정규직 비율이 사업체 규모에 반비례하는 특징은 장기임시근로와 시간제근로, 호출근로, 파견용역근로 모두 마찬가지다. 하지만 기간제는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체를 정점으로 하는 '역U자'를 그리고, 특수고용형태는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체를 정점으로 하는 '역U자'를 그리고 있다(<표 9> 참조).

<표 9> 사업체 규모별 비정규직 규모 (2023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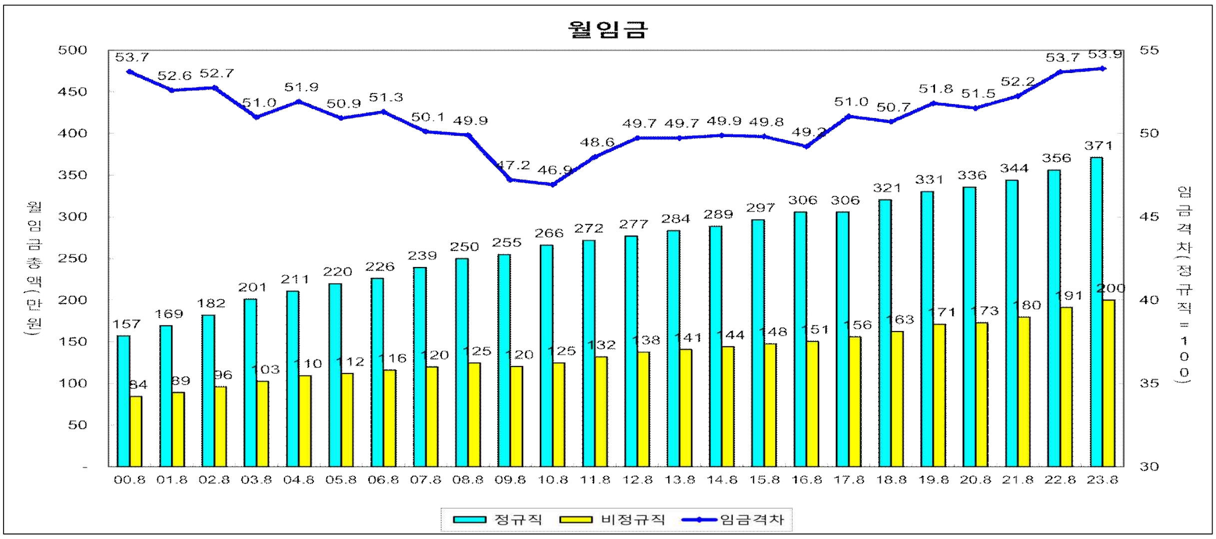
	수(천 명)						비율(%)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임금노동자	3,829	3,783	5,005	4,128	2,125	3,08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1,271	1,812	2,860	2,718	1,654	2,581	33.2	47.9	57.1	65.8	77.8	83.7
비정규직	2,558	1,971	2,145	1,410	471	503	66.8	52.1	42.9	34.2	22.2	16.3
임시근로	2,402	1,841	1,949	1,293	431	467	62.7	48.7	38.9	31.3	20.3	15.1
장기임시근로	1,295	746	541	319	50	35	33.8	19.7	10.8	7.7	2.4	1.1
한시근로	1,107	1,095	1,408	974	381	432	28.9	28.9	28.1	23.6	17.9	14.0
(기간제)	867	954	1,303	915	358	412	22.6	25.2	26.0	22.2	16.8	13.4
시간제근로	1,461	919	836	433	115	109	38.2	24.3	16.7	10.5	5.4	3.5
호출근로	290	213	115	39	7	1	7.6	5.6	2.3	0.9	0.3	0.0
특수고용	135	60	153	159	23	23	3.5	1.6	3.1	3.9	1.1	0.7
파견용역	183	193	206	128	27	18	4.8	5.1	4.1	3.1	1.3	0.6
(파견)	49	50	57	46	12	7	1.3	1.3	1.1	1.1	0.6	0.2
(용역)	134	143	149	82	15	12	3.5	3.8	3.0	2.0	0.7	0.4
가내근로	29	9	13	12	4	5	0.8	0.2	0.3	0.3	0.2	0.2

Ⅱ. 비정규직 임금·노동시간·노동복지 등

1. 월 평균임금

지난 3개월간 월 평균임금은 정규직이 2022년 356만 원에서 2023년 371만 원으로 15만 원(4.2%)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91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9만 원(4.6%) 인상되었다. 그 결과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53.7%에서 53.9%로 0.2%p 축소되었다([그림 10]과 <표 10> 참조).

[그림 10]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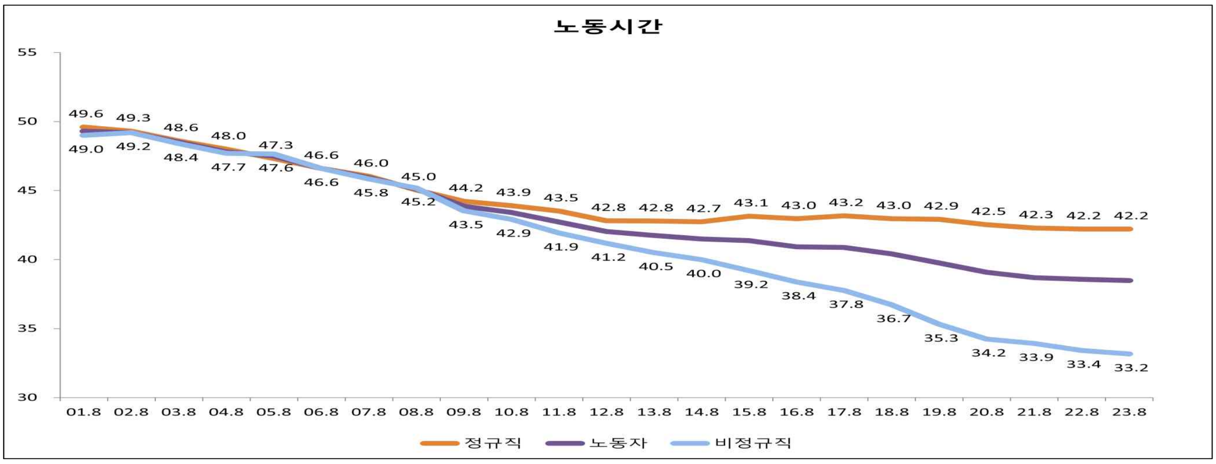
<표 10> 연도별 고용형태별 월 평균임금 및 격차 (정규직=100)

	금액(만 원)					격차(%)				
	19년 8월	20년 8월	21년 8월	22년 8월	23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21년 8월	22년 8월	23년 8월
임금노동자	264	268	273	288	301	79.9	79.8	79.4	80.8	81.0
정규직	331	336	344	356	371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171	173	180	191	200	51.8	51.5	52.2	53.7	53.9
임시근로	170	172	179	190	199	51.4	51.1	51.9	53.4	53.7
장기임시근로	164	160	170	180	187	49.5	47.6	49.4	50.5	50.2
한시근로	175	180	184	196	206	52.9	53.7	53.5	55.1	55.6
(기간제근로)	181	188	189	202	210	54.6	55.9	54.9	56.6	56.5
시간제근로	93	90	92	100	107	28.0	26.9	26.6	28.0	28.9
호출근로	164	161	178	190	196	49.7	47.9	51.6	53.2	52.8
특수고용	217	215	223	232	257	65.5	64.0	64.8	65.2	69.2
파견용역	187	196	201	211	220	56.6	58.5	58.3	59.2	59.1
(파견)	207	217	215	240	226	62.7	64.7	62.4	67.4	60.8
(용역)	181	190	196	201	217	54.8	56.6	56.8	56.5	58.4
가내근로	93	111	148	149	153	28.3	33.0	43.0	41.7	41.2

2. 노동시간

정규직은 주당 노동시간이 2001년 49.6시간에서 2012년 42.8시간으로 6.8시간 단축되었다. 그러나 그 뒤로는 2023년에도 42.2시간으로 거의 변함이 없다. 비정규직은 2001년 49.0시간에서 2012년 41.2시간으로 7.8시간 단축되었고, 2023년에는 33.2시간으로 다시 8시간 감소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 노동은 2022년 97만 명(4.5%)에서 2023년 101만 명(4.6%)으로 4만 명(0.1%p) 증가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은 115만 명(5.3%)에서 117만 명(5.3%)으로 2만 명(0.0%p) 증가했고,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은 403만 명(18.6%)에서 416만 명(18.9%)으로 13만 명(0.3%p) 증가했다([그림 11]과 <표 11> 참조).

[그림 11] 고용형태별 노동시간 추이 (단위: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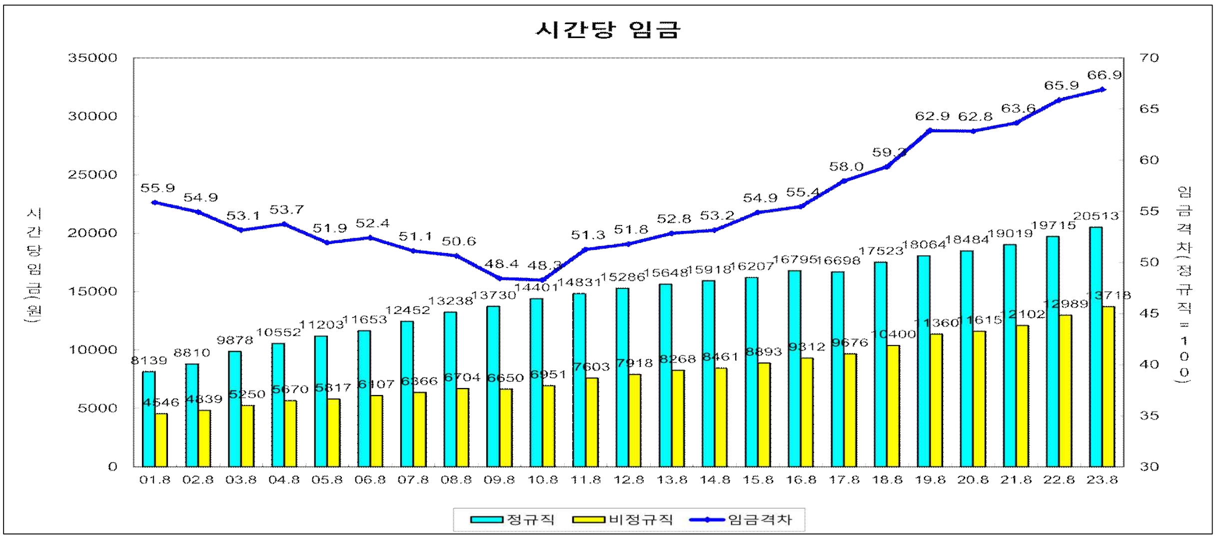
<표 11> 연도별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평균값과 분포

	(평소) 노동시간					2023년 노동시간 계층별 분포(%)						
	19년 8월	20년 8월	21년 8월	22년 8월	23년 8월	15 미만	15-35	36-40	41-44	45-48	49-52	52 초과
임금노동자	39.8	39.1	38.7	38.6	38.5	5.3	13.6	59.0	2.0	9.7	5.8	4.6
정규직	42.9	42.5	42.3	42.2	42.2		0.9	75.0	2.5	10.6	6.6	4.4
비정규직	35.3	34.2	33.9	33.4	33.2	12.9	31.7	36.1	1.4	8.3	4.6	4.9
임시근로	35.5	34.4	34.0	33.5	33.3	13.9	28.4	37.7	1.5	8.7	4.8	5.1
장기임시근로	36.6	35.3	35.1	34.4	33.8	9.7	36.6	30.4	1.4	10.2	5.1	6.5
한시근로	34.5	33.7	33.3	33.0	33.1	16.2	23.9	41.7	1.6	7.9	4.6	4.3
(기간제근로)	34.7	34.0	33.5	33.4	33.2	16.4	22.5	43.4	1.6	7.6	4.3	4.3
시간제근로	20.0	19.6	19.6	19.7	19.8	30.3	69.7	0.1				
호출근로	36.1	35.6	35.3	34.3	34.6	5.9	36.2	39.2	1.1	10.8	3.6	3.3
특수고용	38.9	39.0	39.0	38.3	38.3	2.7	24.4	49.5	2.0	9.6	5.2	6.7
파견용역	41.5	40.9	40.4	40.0	40.3	2.0	22.9	42.2	2.8	13.5	6.5	10.1
(파견)	39.8	39.0	38.7	38.7	38.6	4.0	21.5	43.0	2.7	16.1	5.4	7.2
(용역)	42.1	41.5	41.0	40.4	40.9	1.1	23.4	41.6	3.0	12.5	7.1	11.2
가내근로	28.1	28.3	30.0	29.0	28.4	17.6	43.2	28.4	1.4	2.7	2.7	4.1

3. 시간당 임금

정규직은 지난 3개월간 시간당 임금 평균이 2022년 1만 9,715원에서 2023년 2만 513원으로 798원(4.0%) 상승했고, 비정규직은 1만 2,989원에서 1만 3,718원으로 729원(5.6%) 상승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65.9%에서 66.9%로 1.0%p 개선되었다([그림 12]와 <표 12> 참조).

[그림 12]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추이 (단위: 원, %)



<표 12> 연도별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및 격차 (정규직=100)

	금액(원)					격차(%)				
	19년 8월	20년 8월	21년 8월	22년 8월	23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21년 8월	22년 8월	23년 8월
임금노동자	15,274	15,627	16,041	16,929	17,710	84.6	84.5	84.3	85.9	86.3
정규직	18,064	18,484	19,019	19,715	20,513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11,360	11,615	12,102	12,989	13,718	62.9	62.8	63.6	65.9	66.9
임시근로	11,144	11,414	11,946	12,813	13,520	61.7	61.8	62.8	65.0	65.9
장기임시근로	10,610	10,561	11,276	12,113	12,834	58.7	57.1	59.3	61.4	62.6
한시근로	11,584	12,037	12,384	13,230	13,901	64.1	65.1	65.1	67.1	67.8
(기간제근로)	11,861	12,364	12,587	13,449	14,054	65.7	66.9	66.2	68.2	68.5
시간제근로	11,083	10,827	10,871	11,712	12,545	61.4	58.6	57.2	59.4	61.2
호출근로	10,719	10,511	11,668	12,743	13,041	59.3	56.9	61.3	64.6	63.6
특수고용	13,076	12,725	13,280	14,262	15,716	72.4	68.8	69.8	72.3	76.6
파견용역	10,535	11,225	11,740	12,356	12,708	58.3	60.7	61.7	62.7	61.9
(파견)	11,932	12,635	13,008	14,231	13,421	66.1	68.4	68.4	72.2	65.4
(용역)	10,122	10,806	11,284	11,732	12,413	56.0	58.5	59.3	59.5	60.5
가내근로	8,404	9,926	12,054	11,606	14,771	46.5	53.7	63.4	58.9	72.0

4. 임금 불평등

상위 10% 컷오프와 하위 10% 컷오프의 시간당 임금 격차(P9010)는 2021년 3.70배에서 2022년 3.36배, 2023년 3.21배로 감소했다. 상위 10% 컷오프와 하위 10% 컷오프의 월 임금 격차(P9010)도 2021년 6.25배에서 2022년 5.45배, 2023년 5.05배로 감소했다(<표 13> 참조).

<표 13> 연도별 임금 불평등

	시간당 임금(원)					월 임금 총액(만 원)				
	19년 8월	20년 8월	21년 8월	22년 8월	23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21년 8월	22년 8월	23년 8월
평균값	15,274	15,627	16,041	16,929	17,710	264	268	273	288	301
하위 10%	7,368	7,599	7,771	8,576	8,955	89	80	80	92	99
50%	12,434	13,040	13,432	14,391	14,613	230	240	250	250	260
90%	26,480	27,632	28,783	28,783	28,783	480	500	500	500	500
p9010	3.59	3.64	3.70	3.36	3.21	5.39	6.25	6.25	5.45	5.05
p5010	1.69	1.72	1.73	1.68	1.63	2.58	3.00	3.13	2.72	2.62
p9050	2.13	2.12	2.14	2.00	1.97	2.09	2.08	2.00	2.00	1.92

2023년 월 평균임금이 여자(235만 원)는 남자(356만 원)의 65.8%고, 비정규직(200만 원)은 정규직(371만 원)의 53.9%다. 남자 정규직 임금(414만 원)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246만 원)은 59.5%, 여자 정규직(305만 원)은 73.9%, 여자 비정규직(163만 원)은 39.4%다. 남녀 차별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더 심하고, 남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비정규직 여성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시간당 임금 격차는 <표 14> 참조).

<표 14> 남녀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 (시간당 임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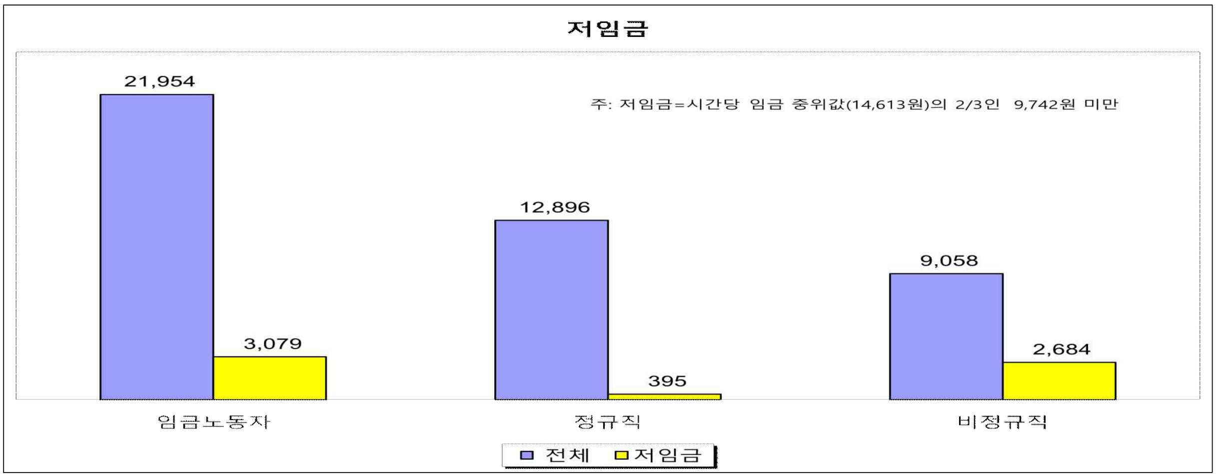
	시간당 임금(원)					임금 격차(%)				
	19년 8월	20년 8월	21년 8월	22년 8월	23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21년 8월	22년 8월	23년 8월
남자	17,410	17,788	18,358	19,315	20,130	100.0	100.0	100.0	100.0	100.0
여자	12,618	12,924	13,225	14,019	14,831	72.5	72.7	72.0	72.6	73.7
정규직	18,064	18,484	19,019	19,715	20,513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11,360	11,615	12,102	12,989	13,718	62.9	62.8	63.6	65.9	66.9
남자 정규직	20,012	20,392	21,013	21,886	22,669	100.0	100.0	100.0	100.0	100.0
남자 비정규직	12,419	12,846	13,518	14,457	15,238	62.1	63.0	64.3	66.1	67.2
여자 정규직	14,831	15,330	15,736	16,272	17,157	74.1	75.2	74.9	74.3	75.7
여자 비정규직	10,471	10,562	10,936	11,743	12,476	52.3	51.8	52.0	53.7	55.0

5. 저임금

EU(유럽연합) LoWER(Low Wage Employment Research Network, 저임금고용연구네트워크)는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저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3 미만을 '중간임금 계층', 중위임금의 2분의 3 이상을 '고임금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경활부가조사 결과 중위임금(14,613원)의 3분의 2인 '시간당 임금 9,742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2,195만 명 가운데 308만 명(14.0%)이 저임금 계층이고, 정규직은 40만 명(3.1%), 비정규직은 268만 명(29.6%)이 저임금 계층이다. 정규직은 30명 중 1명, 비정규직은 10명 중 3명꼴로 저임금 계층이다. 저임금 계층은 2017년 21.5%에서 2018년 15.7%, 2019년 15.8%로 뚝 떨어진 뒤 2020년 17.4%로 증가했으나, 2021년 16.1%, 2022년 15.6%, 2023년 14.0%로 다시 감소하고 있다([그림 13]과 <표 15> 참조).

월 임금 총액 기준으로 중위임금(260만 원)의 3분의 2 미만인 '173.3만 원 미만'을 저임금 계층으로 분류하면, 전체 노동자 2,195만 명 가운데 413만 명(18.8%)이 저임금계층이다(<표 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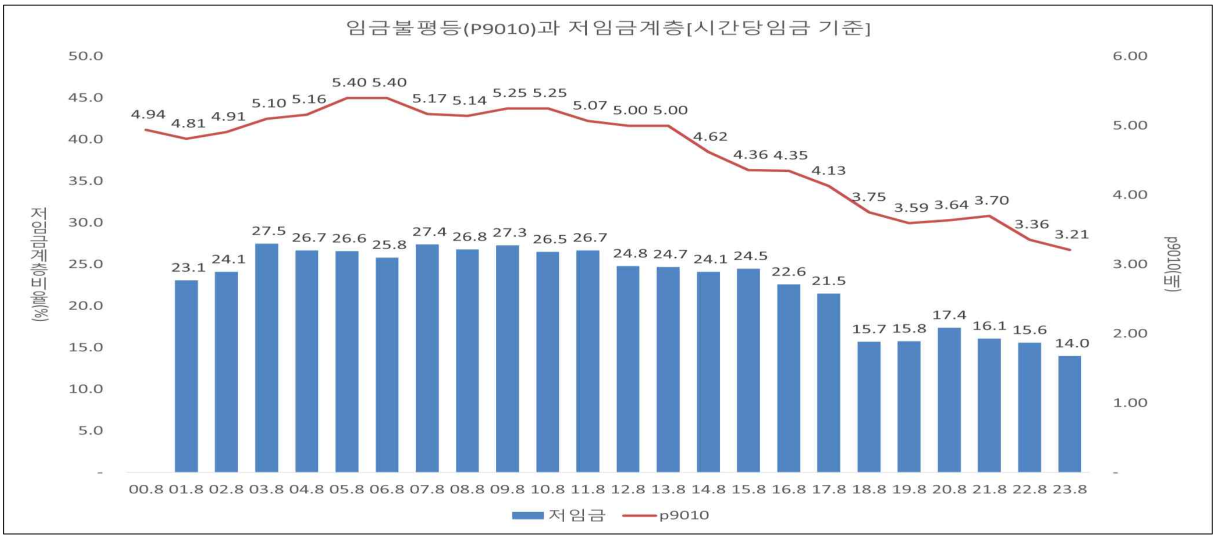
[그림 13] 고용형태별 저임금 노동자 규모 (2023년 8월,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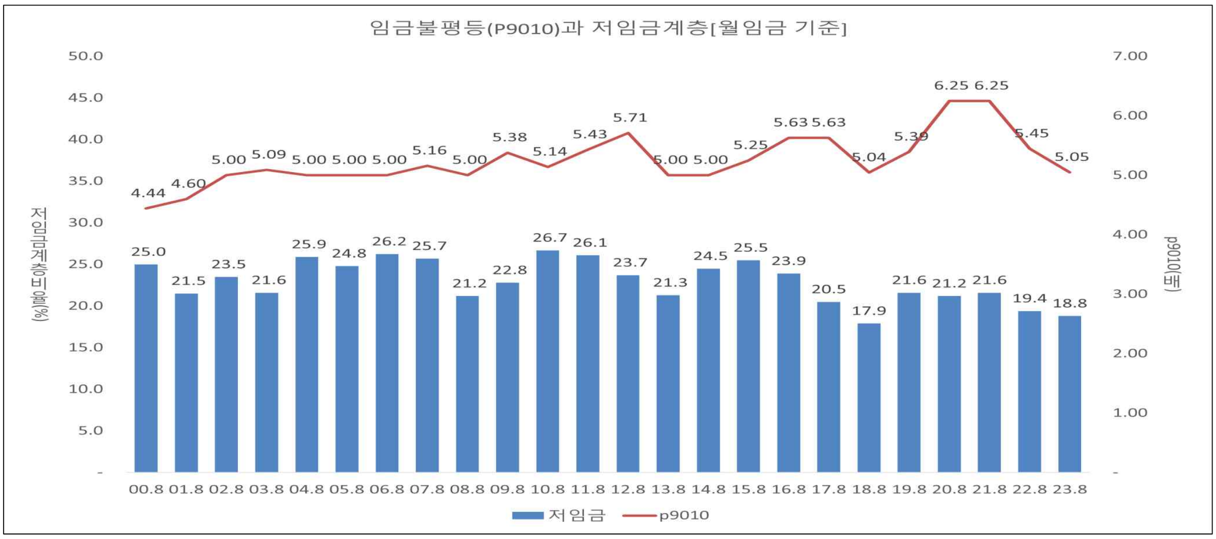


<표 15> 연도별 저임금 계층 비율 (EU LoWER 기준, 단위: %)

	시간당 임금 기준					월 임금총액 기준				
	19년 8월	20년 8월	21년 8월	22년 8월	23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21년 8월	22년 8월	23년 8월
저임금	15.8	17.4	16.1	15.6	14.0	21.6	21.2	21.6	19.4	18.8
중간임금	60.8	60.0	60.2	62.7	63.1	55.4	58.1	58.0	57.8	57.4
고임금	23.5	22.7	23.7	21.7	22.9	23.0	20.7	20.4	22.7	23.8

[그림 14] 임금 불평등(P9010)과 저임금 계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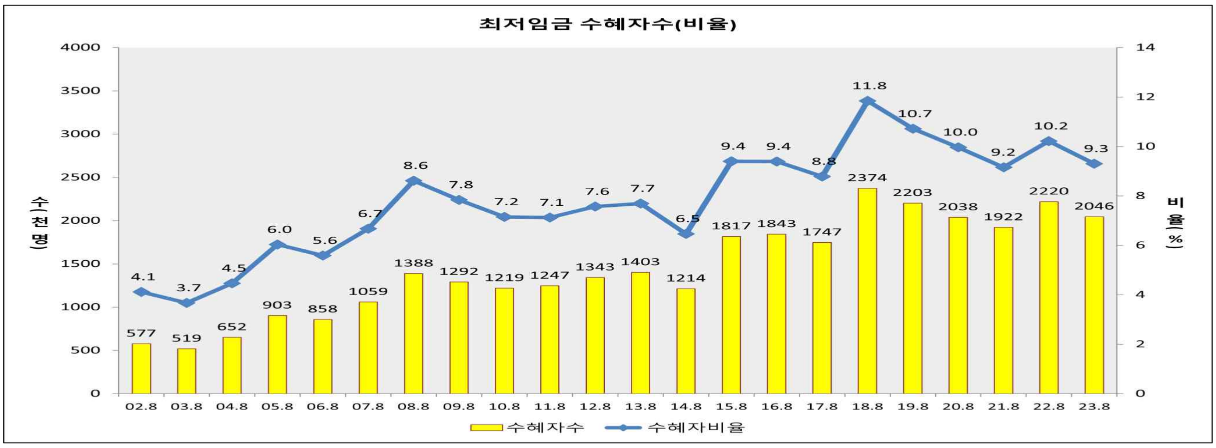


6. 법정 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최저임금 수혜자(최저임금의 90~110% 수령 노동자)[1]는 205만 명(전체 노동자의 9.3%)이다.

최저임금 수혜자(비율)는 2003년 52만 명(3.7%)에서 2008년 139만 명(8.6%)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09년에는 129만 명(7.8%), 2010년에는 122만 명(7.2%)으로 감소했고, 그 뒤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서 2013년에는 140만 명(7.7%)으로 증가했다. 2014년에는 121만 명(6.5%)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2015~16년에는 182~184만 명(9.4%)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7년에는 175만 명(8.8%)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18년에는 237만 명(11.8%)으로 많이 증가했다. 2019년에는 220만 명(10.7%), 2020년에는 204만 명(10.0%), 2021년에는 192만 명(9.2%)으로 감소하다가, 2022년에는 222만 명(10.2%)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205만 명(9.3%)으로 다시 감소했다([그림 15] 참조).

[그림 15] 최저임금 수혜자 추이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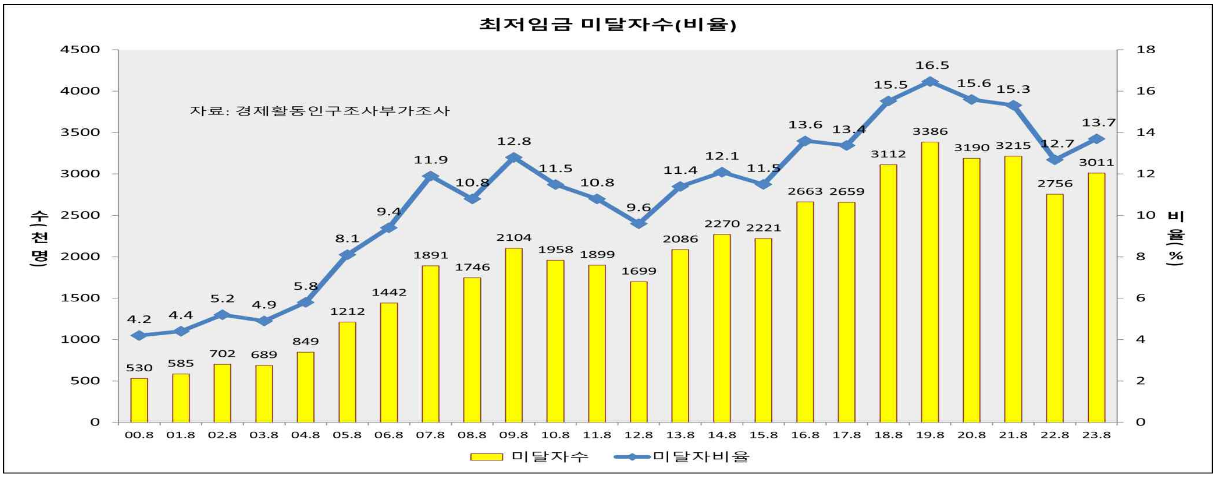


2023년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301만 명(13.7%)이다. 연도별로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1년 59만 명(4.4%)에서 2009년 210만 명(12.8%)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2012년에는 170만 명(9.6%)이 됐다. 하지만 2013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6~17년에는 266만 명(13.6%), 2018년에는 311만 명(15.5%), 2019년에는 339만 명(16.5%)으로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319만 명(15.6%), 2021년에는 322만 명(15.3%), 2022년에는 276만 명(12.7%)으로 감소했다.

1) 최저임금 수혜자와 영향률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ILO(2013)에 따라 최저임금의 90~110%를 수령하는 노동자를 최저임금 수혜자로 정의하고, 전체 노동자 대비 최저임금 수혜자 비율을 최저임금 영향률로 정의한다.

그러나 2023년에는 301만 명(13.7%)으로 다시 증가했다([그림 16] 참조).

[그림 16]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 추이 (단위: 천 명, %)



2021년에는 시급제 노동자 209만 명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3만 명(1.4%), 최저임금(8,720원) 받는 사람이 85만 명(40.5%)이었다. 이는 최저임금이 시급제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표준임금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임금구성이 단순명료해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2022년에는 시급제 노동자 247만 명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43만 명(17.6%), 최저임금(9,160원) 받는 사람이 95만 명(38.6%)이다.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1년 사이 40만 명(16.2%p) 증가한 것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9,000원(월 27만 원 ÷ 월 30시간)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시급 9천 원을 받은 40만 명 가운데 37만 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2023년에는 시급제 노동자 245만 명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32만 명(13.2%), 최저임금(9,620원) 받는 사람이 98만 명(39.9%)이다.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9천 원을 받은 29만 명 가운데 28만 명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2023년에도 여전히 시급 9천 원을 지급했기 때문이다(<표 16> 참조).

<표 16> 시급제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분포 (2023년 8월, 단위: 천 명, %)

	9,000원 미만	9,000원	9,001~9,619원	최저임금 9,620원	9,621~9,859원	9,860~1만 원	1만 원 초과	전체
수(천 명)	6	287	31	977	75	419	654	2449
비율(%)	0.3	11.7	1.3	39.9	3.1	17.1	26.7	100.0
누적 비율(%)	0.3	12.0	13.2	53.1	56.2	73.3	100.0	
15-64세(천 명)	8	8	26	808	69	355	559	1,833
65세 이상(천 명)		280	5	169	6	63	95	618

7. 임금 지급 방식

정규직은 월급제(66.0%)와 연봉제(30.6%) 비중이 96.6%인데, 비정규직은 월급제(47.4%), 시급제(24.2%), 일급제(12.7%), 실적급제(8.4%), 연봉제(6.6%) 순으로 임금 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특히 시간제근로는 시급제(47.3%), 월급제(36.1%), 일급제(8.4%), 실적급제(5.8%) 순으로, 가내근로는 월급제(39.7%), 실적급제(27.4%), 시급제(23.3%) 순으로 임금 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이에 비해 호출근로는 일급제(82.3%), 특수고용형태는 실적급제(100.0%), 파견용역은 월급제(64.1%)가 주를 이루고 있다(<표 1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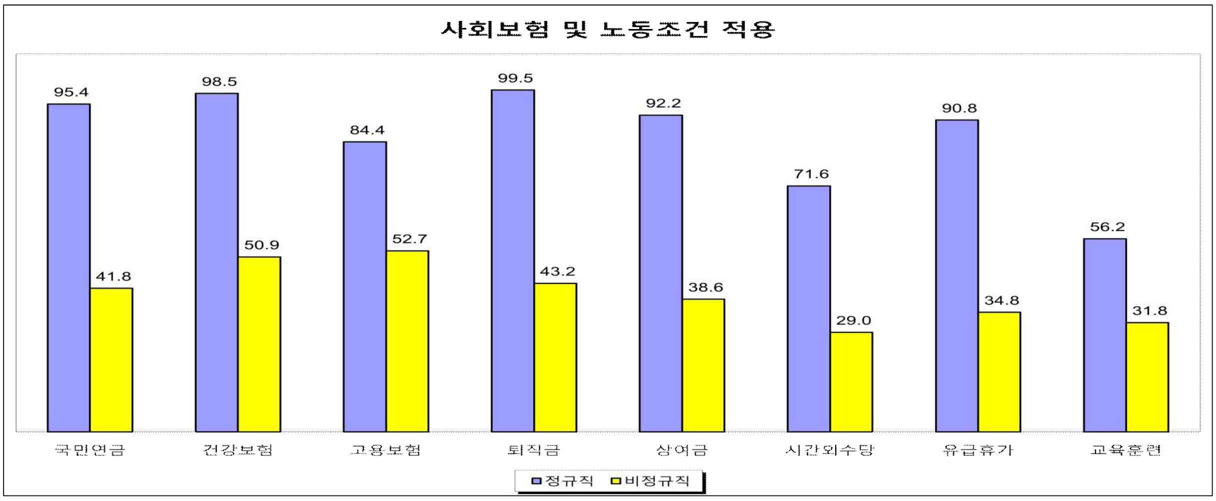
<표 17> 고용형태별 임금 지급 방식 (2023년 8월, 단위: %)

	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연봉제	실적급제	기타	전체
임금노동자	11.2	5.7	0.4	58.3	20.7	3.8	0.0	100.0
정규직	2.0	0.7	0.1	66.0	30.6	0.5	0.0	100.0
비정규직	24.2	12.7	0.7	47.4	6.6	8.4	0.0	100.0
임시근로	25.0	13.5	0.8	45.7	6.4	8.7	0.0	100.0
장기임시근로	24.7	25.8	1.5	29.1		18.9	0.0	100.0
한시근로	25.1	6.7	0.3	54.9	9.9	3.0		100.0
(기간제근로)	24.0	5.6	0.3	56.9	10.8	2.4		100.0
시간제근로	47.3	8.4	0.7	36.1	1.6	5.8	0.0	100.0
호출근로	11.7	82.3	1.2			4.8		100.0
특수고용						100.0		100.0
파견용역	12.6	18.3		64.1	4.6	0.4		100.0
(파견)	17.6	20.7		53.2	7.2	1.4		100.0
(용역)	10.7	17.2		68.4	3.6	0.2		100.0
가내근로	23.3	4.1		39.7	5.5	27.4		100.0

8.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조건 적용률

현 직장에서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은 84~99%인데, 비정규직은 42~53%밖에 안 된다. 또한 정규직은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를 72~99% 적용받지만, 비정규직은 29~43%만 적용받는다([그림 17]과 <표 18> 참조).

[그림 17]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2023년 8월, 단위: %)



<표 18>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2023년 8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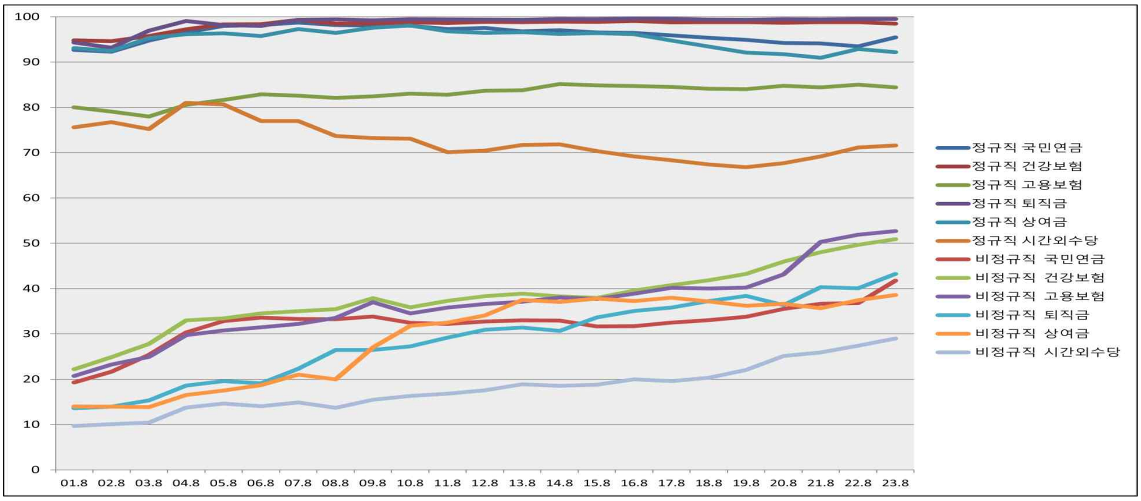
	국민연금 (직장)	건강보험 (직장)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휴가	교육훈련 경험
임금노동자	74.4	78.9	71.3	76.3	70.1	54.0	67.7	46.1
정규직	95.4	98.5	84.4	99.5	92.2	71.6	90.8	56.2
비정규직	41.8	50.9	52.7	43.2	38.6	29.0	34.8	31.8
임시근로	38.7	47.7	50.1	39.0	35.7	27.5	32.1	30.9
장기임시근로	14.3	19.6	36.9	12.6	18.6	13.0	5.7	16.5
한시근로	53.3	63.2	57.4	53.5	45.1	35.5	46.7	38.9
(기간제근로)	57.1	67.2	59.8	57.7	48.0	37.6	50.8	41.6
시간제근로	23.9	32.4	33.3	28.1	24.8	18.4	17.8	26.0
호출근로	1.2	1.8	14.3	0.8	3.6	8.3	0.7	5.8
특수고용	11.4	12.7	77.9	6.9	16.1	1.4	2.7	45.8
파견용역	50.3	76.2	60.1	68.7	50.1	38.2	53.0	37.3
(파견)	59.5	73.3	65.2	64.1	48.7	40.2	53.6	39.1
(용역)	45.8	77.4	58.1	70.6	50.7	37.3	52.7	36.6
가내근로	37.3	44.1	38.4	37.2	39.8	2.0	21.3	20.3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정규직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률과 퇴직금·상여금 적용률

이 92~99%에 이르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84~85%, 유급휴가 적용률은 91%, 시간외수당 적용률은 72%로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이 2001년 19~22%에서 2023년 42~53%로 증가했고, 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적용률은 10~14%에서 29~43%로 증가했다. 특히 비정규직의 고용보험은 2017년 40.2%에서 2023년 52.7%로 6년 만에 12.5%p 증가했고, 건강보험은 40.8%에서 50.9%로 10.1%p 증가했으며, 국민연금은 32.5%에서 41.8%로 9.3%p 증가했다([그림 18]과 <표 19> 참조).

[그림 18] 비정규직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추이 (단위: %)



<표 19] 연도별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단위: %)

	정규직					비정규직				
	19년 8월	20년 8월	21년 8월	22년 8월	23년 8월	19년 8월	20년 8월	21년 8월	22년 8월	23년 8월
국민연금	94.9	94.2	94.1	93.5	95.4	33.8	35.5	36.7	36.8	41.8
건강보험	98.8	98.7	98.8	98.8	98.5	43.3	45.9	48.0	49.7	50.9
고용보험	84.0	84.8	84.4	85.0	84.4	40.2	43.1	50.3	51.9	52.7
퇴직금	99.3	99.5	99.4	99.5	99.5	38.4	36.4	40.3	40.1	43.2
상여금	92.1	91.7	90.9	92.9	92.2	36.2	36.6	35.6	37.4	38.6
시간외수당	66.8	67.7	69.2	71.2	71.6	22.1	25.1	25.9	27.4	29.0
유급휴가	88.5	89.2	89.5	89.9	90.8	27.1	30.2	31.9	32.9	34.8
교육훈련경험	65.6	62.6	58.7	57.6	56.2	37.5	37.6	33.1	32.4	31.8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 이외에 지역가입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은 의료보호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측면까지 고려해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계산하면, 건강보험은 직장가입(50.9%), 지역가입(24.5%),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21.1%), 의료수급권자(1.4%) 등 98.0%가 적용받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직장가입(41.8%)과 지역가입(15.8%)을 합쳐도 가입률이 57.6%밖에 안 된다.

공무원과 교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규직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11.8%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3.8%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46.1%에 이른다. 하지만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은 2017년 40.2%에서 2023년 52.7%로 6년 만에 12.5%p 높아졌다(<표 20> 참조).

<표 20>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적용률 (2023년 8월, 단위: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미가입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의료수급 권자	직장가입 피부양자	미가입	가입	비대상
임금노동자	19.0	74.4	6.6	0.9	78.9	10.7	0.6	9.0	21.2	71.3	7.5
정규직	3.8	95.4	0.7	0.0	98.5	0.9	0.1	0.4	3.8	84.4	11.8
비정규직	42.4	41.8	15.8	2.0	50.9	24.5	1.4	21.1	46.1	52.7	1.2
임시근로	44.6	38.7	16.6	2.2	47.7	26.1	1.5	22.6	48.7	50.1	1.3
장기임시근로	57.1	14.3	28.6	3.4	19.6	45.3	2.0	29.7	63.0	36.9	0.2
한시근로	37.2	53.3	9.5	1.5	63.2	15.5	1.2	18.7	40.8	57.4	1.9
(기간제근로)	34.2	57.1	8.6	1.2	67.2	13.2	1.1	17.3	38.1	59.8	2.0
시간제근로	62.5	23.9	13.6	2.7	32.4	25.3	2.2	37.3	66.0	33.3	0.7
호출근로	66.4	1.1	32.4	6.0	1.8	60.3	2.0	29.9	85.6	14.3	0.2
특수고용	33.0	11.4	55.6	0.5	12.7	66.0	1.4	19.3	22.1	77.9	
파견용역	39.1	50.3	10.7	1.7	76.2	14.6	0.8	6.7	39.7	60.1	0.3
(파견)	33.3	59.8	6.9	5.4	73.3	13.1	1.4	6.8	34.4	65.2	0.5
(용역)	41.8	45.9	12.3	0.2	77.4	15.1	0.7	6.5	41.9	58.1	
가내근로	46.4	37.7	15.9		44.4	37.5		18.1	58.9	38.4	2.7

9. 근속 연수

2023년 임금노동자 근속 연수 평균은 6.1년으로 1년 전보다 0.1년 길어졌다. 정규직은 8.6년, 비정규직은 2.7년으로, 각각 0.1년과 0.2년 길어졌다. 근속 연수 1년 미만의 단기근속자는 정규직이 14.6%, 비정규직이 52.6%다. 근속 연수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는 정규직이 32.4%, 비정규직이 6.8%다. 이는 그만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심함을 말해준다(<표 21> 참조).

<표 21> 근속 연수 평균값과 계층별 분포 (2023년 8월, 단위: %)

	근속 연수		분포(%)					
	평균값	중위값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임금노동자	6.1	2.7	30.3	13.4	7.9	11.6	15.1	21.9
정규직	8.6	5.3	14.6	12.3	8.0	13.2	19.5	32.4
비정규직	2.7	0.8	52.6	14.9	7.6	9.3	8.8	6.8
임시근로	2.4	0.8	55.1	15.0	7.3	8.5	8.0	6.0
장기임시근로	2.3	0.6	57.2	13.9	7.8	7.1	7.7	6.3
한시근로	2.5	0.8	53.9	15.6	7.1	9.3	8.2	5.8
(기간제근로)	2.5	0.8	53.0	15.8	7.3	9.5	8.5	5.9
시간제근로	2.1	0.6	60.9	13.1	6.4	8.0	6.6	5.0
호출근로	0.0		99.1	0.5	0.3	0.2		
특수고용	6.5	3.5	22.5	11.8	11.2	13.4	18.7	22.5
파견용역	3.0	1.3	43.5	16.8	8.1	11.6	13.0	7.0
(파견)	2.7	1.0	46.6	19.5	8.6	8.1	11.3	5.9
(용역)	3.1	1.4	42.1	15.7	7.7	13.3	13.7	7.5
가내근	2.3	0.6	60.6	15.5	2.8	9.9	4.2	7.0

10. 취업 동기

현재 일자리 형태에 비자발적 취업은 정규직이 7.1%, 비정규직이 35.0%다. 정규직은 자발적 취업 사유를 '안정된 일자리'(46.6%), '근로조건 만족'(42.1%) 순으로 응답했고, 비정규직은 비자발적 취업 사유를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25.4%)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4.1%) 순으로 응답하고 있다. 고용형태별 비자발적 취업자 비율은 호출근로(70.9%), 장기임시근로(43.8%), 시간제근로(40.1%), 파견용역(39.5%), 가내근로(33.3%), 특수고용(30.7%), 기간제근로(30.5%) 순이다(<표 2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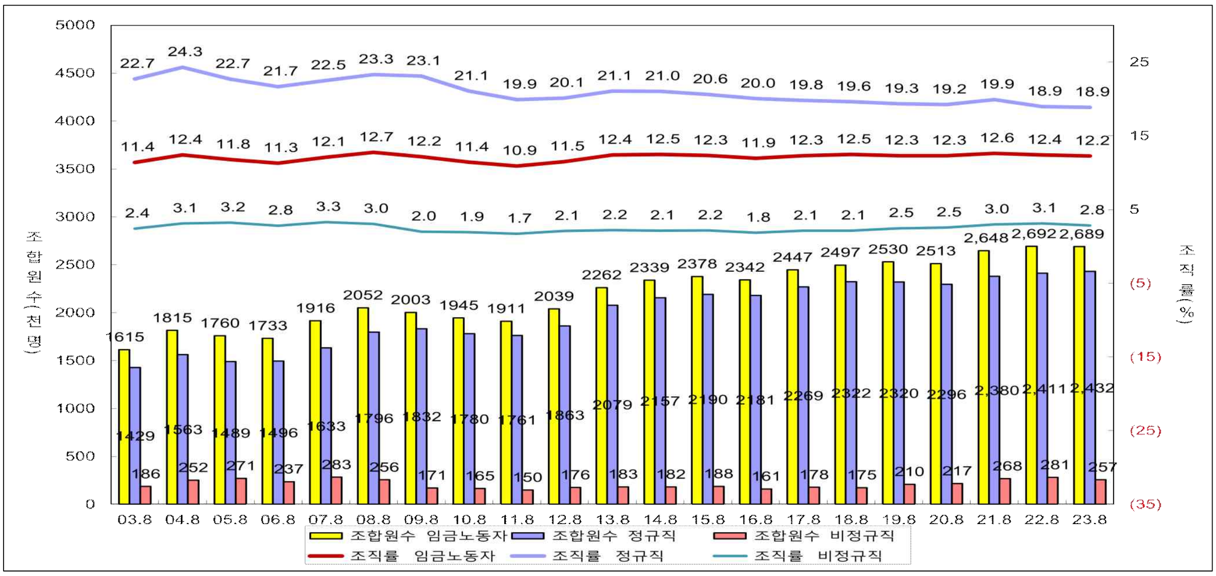
<표 22> 고용형태별 취업 동기 (2023년 8월, 단위: %)

	자발적 취업 여부		자발적 취업 사유			비자발적 취업 사유			
	자발적 취업	비자발적 취업	근로조건 만족	안정된 일자리	기타	생활비등 수입필요	원하는일 자리없어	전공경력맞는 일자리무	기타
임금노동자	81.4	18.6	40.8	33.0	7.6	13.6	2.1	0.8	2.2
정규직	92.9	7.1	42.1	46.6	4.2	5.4	0.7	0.4	0.6
비정규직	65.0	35.0	38.9	13.6	12.4	25.4	4.1	1.2	4.3
임시근로	63.6	36.4	38.5	12.6	12.5	26.5	4.2	1.2	4.5
장기임시근로	56.2	43.8	32.4	6.5	17.3	32.9	4.0	1.2	5.6
한시근로	67.7	32.3	41.8	16.0	9.9	22.9	4.4	1.2	3.8
(기간제근로)	69.5	30.5	43.4	17.2	8.9	21.5	4.4	1.2	3.4
시간제근로	59.9	40.1	37.4	7.0	15.5	27.1	5.2	1.3	6.5
호출근로	29.1	70.9	18.4	1.2	9.5	62.6	3.6	1.2	3.5
특수고용	69.3	30.7	35.2	5.6	28.5	21.1	2.5	0.9	6.1
파견용역	60.5	39.5	35.3	19.6	5.6	32.4	4.5	1.2	1.4
(파견)	65.6	34.4	39.1	18.6	7.9	29.1	2.7	0.9	1.7
(용역)	58.4	41.6	34.1	19.9	4.5	33.9	5.2	1.1	1.3
가내근로	66.7	33.3	47.9	6.8	11.9	17.8	5.5		10.0

11. 노조 조직률

조합원 수(조직률)는 2008년 205만 명(12.7%)을 정점으로 2011년 191만 명(10.9%)까지 감소했다. 2012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2014년에는 234만 명(12.5%)으로 3년 만에 43만 명(1.6%p) 증가했고, 2015~16년에는 234~238만 명(12.3~12.5%)으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7년에는 245만 명(12.3%)으로 1년 만에 11만 명(0.4%p) 증가했고, 2018년에는 250만 명(12.5%)으로 5만 명(0.2%p)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253만 명(12.3%)으로 다시 3만 명(단, 비율은 −0.2%p) 증가했다. 2020년에는 251만 명(12.3%)으로 2만 명 감소했지만, 2021년에는 265만 명(12.6%)으로 14만 명(0.3%p) 증가했고, 2022년에도 269만 명(12.4%)으로 4만 명(−0.2%p) 증가했다. 그러나 2023년에는 269만 명(12.2%)으로 증가세가 멈췄다. 조합원 269만 명 가운데 정규직은 243만 명(18.9%)이고, 비정규직은 26만 명(2.8%)이다([그림 19]와 <표 23> 참조).

[그림 19] 고용형태별 노조 조직률 추이 (단위: %)



<표 23> 연도별 고용형태별 노조 조합원 수, 조직률 및 조합원 구성 (2023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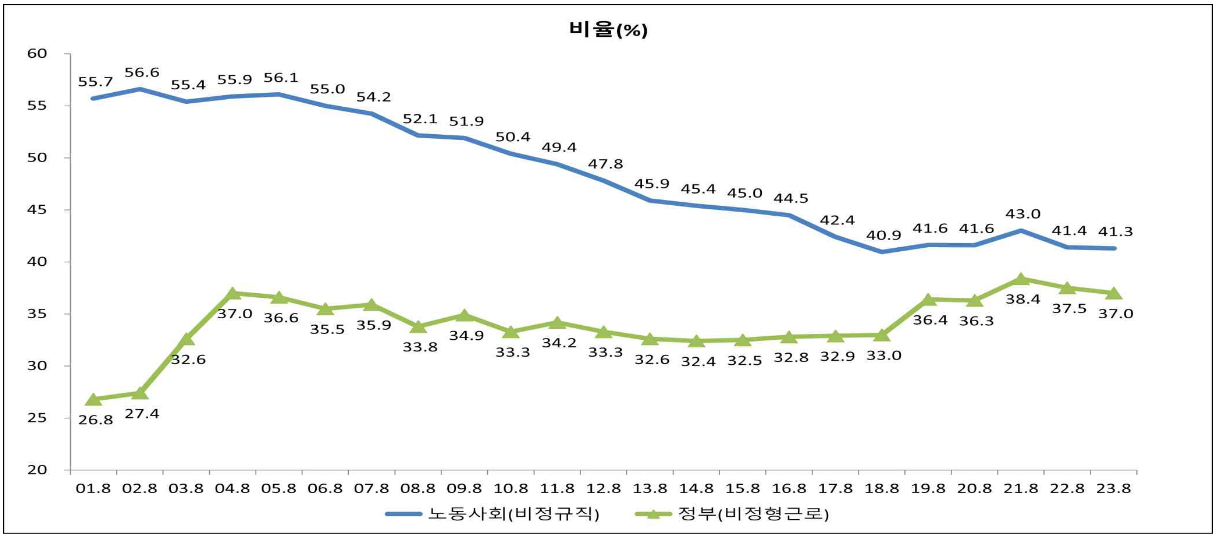
	수(천 명)				비율(%)			
	노조 없음	노조 유. 가입 대상 아님	노조 유. 가입 대상이나 미가입	노조 가입	노조 없음	노조 유. 가입 대상 아님	노조 유. 가입 대상이나 미가입	노조 가입
임금노동자	16,066	1,551	1,648	**2,689**	73.2	7.1	7.5	**12.2**
정규직	8,328	748	1,388	**2,432**	64.6	5.8	10.8	**18.9**
비정규직	7,738	803	260	**257**	85.4	8.9	2.9	**2.8**
임시근로	7,190	765	225	**203**	85.8	9.1	2.7	**2.4**
장기임시근로	2,836	88	44	**18**	95.0	2.9	1.5	**0.6**
한시근로	4,354	677	180	**185**	80.7	12.5	3.3	**3.4**
(기간제근로)	3,818	646	172	**173**	79.4	13.4	3.6	**3.6**
시간제근로	3,480	282	63	**48**	89.9	7.3	1.6	**1.2**
호출근로	649	17			97.4	2.6		
특수고용	483	31	28	**11**	87.3	5.6	5.1	**2.0**
파견용역	653	47	14	**41**	86.5	6.2	1.9	**5.4**
(파견)	181	22	2	**17**	81.5	9.9	0.9	**7.7**
(용역)	472	25	12	**25**	88.4	4.7	2.2	**4.7**
가내근로	63	5	1	**3**	87.5	6.9	1.4	**4.2**

[보론] 비정규직 규모 추정 방식

2023년 8월 비정규직 규모를 정부[2)]는 812만 명(37.0%),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906만 명(41.3%)으로 달리 추정하고 있다. 노동사회연구소 추정 방식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54.2%)부터 2018년(40.9%)까지 꾸준히 감소했고, 2019년 이후는 2021년(43.0%) 한 해를 제외하면 42.4~41.6%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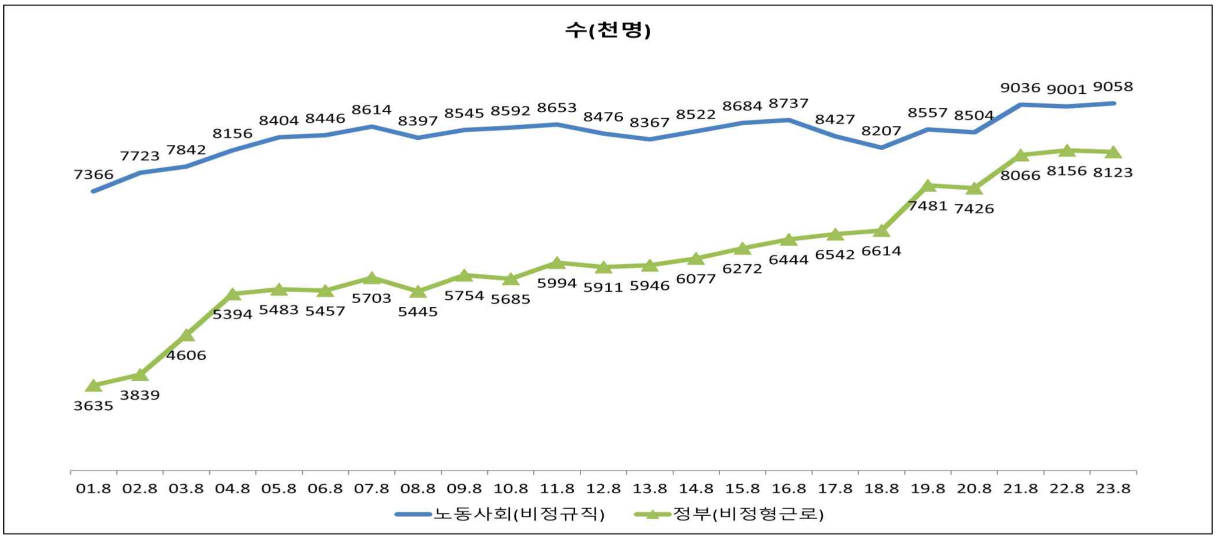
이에 비해 정부 추정 방식에 따르면 2002년 27.4%에서 2004년 37.0%로 가파르게 증가한 비정규직 비율이, 2007년까지 36~37%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8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2013~18년에는 32~33%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2019년에는 36.4%로 1년 만에 3.4%p 증가했고, 2020년에는 36.3%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2021년에는 38.4%로 2.1%p 증가했지만, 2022년에는 37.5%, 2023년에는 37.0%로 감소하고 있다([그림 20] 참조).

[그림 20] 비정규직 규모 추이



2) 2005년까지는 노동부가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해서 발표했다. 그러나 2005년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노동부가 실책을 범하면서, 2006년부터 통계청이 비정규직 규모를 발표하고 있다. 그렇지만 통계청은 노동부 추정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최종 발표기관이 달라진 것을 제외하면 양자 간 차이는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편의상 노동부 또는 통계청을 정부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그리고 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추정하는 비정규직을 '비정형근로'로 정의한다.

[그림 20] 비정규직 규모 추이(계속)



동일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했음에도 비정규직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설문 문항 중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는가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7개 설문 문항(한시근로,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가내근로,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중 어느 하나에 응답한 사람만 비정규직으로 추계한다(<표 24>에서 ②+③). 그동안 통계청이 발표해 온 임시일용직 가운데 91만 명(①)이 실제는 정규직인데 비정규직으로 잘못 분류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임시·일용직은 일제 때부터 사용된 개념으로, 통계청은 1963년부터 상용·임시·일용직을 구분해서 조사 및 발표해 왔다. 비정규직,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등의 용어가 등장하기 전인 1970~80년대에도, 많은 단체협약이 임시직 조항을 체결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노동현장에서 임시·일용직은 불안정고용(비정규직)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통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노동사회연구소는 임시일용직 576만 명(26.2%)에, 부가조사에서 확인된 상용직 가운데 비정규직 328만 명(14.9%)을 합쳐 906만 명(41.3%)으로 추계했다(<표 24>에서 ①+②+③).[3]

3) 정부는 한시근로자를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정의한다. 하지만 노동사회연구소는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주관적 평가가 게재되기 마련인 '비자발적 사유'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아래, 한시근로자를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로 정의한다. 부분적으로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표 24> 비정규직 규모 추계 방식 (2023년, 단위: 천 명, %)

			본 조사		소계
			상용	임시일용	
부가조사	설문 문항 없음	(정형)	④ 12,919(58.8)	① 914(4.2)	①+④ 13,833(63.0)
	한시, 시간제, 파견, 용역, 가내, 호출근로, 특수고용형태	(비정형)	③ 3,275(14.9)	② 4.848(22.1)	②+③ 8,123(37.0)
소계			③+④ 16,194(73.8)	①+② 5,762(26.2)	21,956(100.0)

주: 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①+②+③, 노동부 등 비정형근로=②+③, 통계청 임시일용=①+②

비정규직 규모와 관련된 논란의 핵심인 임시일용직 가운데 91만 명, 즉, '정형-임시일용'(①)의 구성과 노동조건을 살펴보면, 저임금계층이 30만 명이고,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가 29만 명이다. 시간당 임금은 1만 2,071원으로 가장 낮고, 주당 노동시간은 45.3시간으로 가장 길다. 기혼 여자(34.2%)와 중졸 이하 학력자(17.0%) 비중이 높고, 사회보험 적용률은 27~44%, 시간외수당 등 노동조건 적용률은 12~30%로 매우 낮다. 지난 1년간 교육훈련 경험도 12.6%로 가장 낮다(<표 25> 참조).

<표 25> 노동자 구성 및 노동조건 비교

	2021년 8월				2022년 8월				2023년 8월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노동자 수(천 명)	1,034	5,065	3,001	11,892	915	5008	3148	12653	914	4,848	3,275	12,919
비율(%)	4.9	24.1	14.3	56.7	4.2	23.1	14.5	58.2	4.2	22.1	14.9	58.8
저임금계층(천 명)	383	2,195	375	422	322	2190	414	454	301	2039	343	396
최저임금미만(천 명)	367	2,151	334	363	270	1851	300	335	289	2019	328	375
월 평균임금(만 원)	206	141	238	345	222	148	252	357	234	152	261	371
시간당 임금(원)	10,798	11,014	14,391	19,055	11,610	11,777	15,303	19,757	12,071	12,397	16,072	20,517
주 노동시간(시간)	45.0	28.9	38.9	42.3	44.8	28.2	38.6	42.2	45.3	27.6	38.0	42.2
근속 연수(년)	2.5	1.4	4.1	8.5	2.5	1.5	4.1	8.5	2.4	1.6	4.3	8.6
기혼여자비율(%)	35.7	42.0	41.0	24.2	32.1	41.6	42.0	24.6	34.2	42.5	41.9	25.1
중졸이하비율(%)	17.2	26.9	12.7	3.8	19.7	26.0	12.5	3.3	17.0	25.6	10.8	3.1
국민연금적용(%)	25.8	17.0	74.5	94.2	26.2	16.2	73.4	93.6	26.9	17.6	81.5	95.5
건강보험적용(%)	33.3	24.1	94.6	98.8	34.8	24.5	95.0	98.9	35.3	24.8	93.6	98.5
고용보험적용(%)	39.0	32.4	85.3	84.4	41.2	34.3	83.5	85.0	44.1	33.7	85.3	95.7
퇴직금적용(%)	25.4	10.6	96.9	99.4	18.6	8.9	97.2	99.5	23.6	10.4	97.0	99.5
상여금적용(%)	37.4	14.4	71.7	91.0	31.8	16.4	73.7	92.9	29.9	15.9	74.2	92.2
시간외수당(%)	14.6	14.0	50.6	69.3	17.0	14.5	51.8	71.2	15.5	16.1	51.8	71.5
유급휴가(%)	10.7	10.9	75.9	89.6	8.6	11.1	75.3	90.0	12.3	11.8	74.8	90.7
교육훈련경험(%)	16.0	27.0	49.4	58.9	14.1	25.8	48.1	57.7	12.6	24.0	48.4	56.2
노조조직률(%)	1.2	0.5	8.0	19.9	1.6	1.0	7.0	19.0	1.0	0.6	6.6	18.9